

강통을 쥘 여자

백남규

경자는 공원벤치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오늘따라 다리에 힘이 없고 온몸이 노곤했다. 목이 말랐다. 가져온 물병은 벌써 바닥이 났다. 하늘을 쳐다보니 찡찡한 햇살이 뜨거웠다. ‘오늘은 그만 들어가야겠다’고 일어서는데 저쪽 모퉁이에서 김노인이 땀을 씻어내면서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다. 얼굴을 알아볼 정도로 가까이 오자 그는 손을 들어 “미세스 박, 벌써 들어가려우”라고 소리쳤다.

“날도 덥고 오늘은 기운이 없네요.”

정말 사흘 굶은 여인처럼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조금만 건드려도 터져버릴 것 같은 슬픔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얼굴이었



경북 안동 출생. 연세대 국문과 졸업. 2005년 『문학세계』 단편소설 입상. 글마루 동인.

다.

“어디 아파요?”

경자는 한숨을 쉬었다. 가슴이 송곳으로 쿡쿡 찔리는 듯이 아팠다.

“몸살인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일어섰다.

몸 구석구석이 쭈시고 저러왔다. 아파도 아플 수 없었던 지난 세월이 흘러가는 구름모양 머릿속에 떠올랐다.

“일찍 들어가 쉬시구려.”

“그래야겠네요. 날도 더운데 그쪽도 그만 들어가시구려.”

김노인은 한국서 중학교 선생이었다. 은퇴 후 딸네 집에 다니러 왔다가 놀러앉아 산다고 했다. 지난해에 안사람이 저 세상으로 떠난 후, 긴긴 시간을 견딜 수 없어서 공원 산책을 나왔다가 깡통을 줍고 있는 경자와 만난 것이다.

그 날, 경자는 공원 수돗가에서 더러워진 깡통을 깨끗이 씻은 다음 발뒤꿈치로 납작하게 밟고 있는 중이었다. 사소한 일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산 그녀다. 시든 오이지처럼 쪼글쪼글한 얼굴에 머리칼은 산 발한 듯이 엉클어져, 언뜻 보기에 세상살이에 찌든 모습이지만 가만히 지켜보면 단단한 무엇이 배어있는 얼굴이다.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뭔가가 그녀의 모습에서 풍겨나오곤 한다. 벤치에 앉아서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김노인은 “거 더운데 좀 쉬었다 하시구려.”라고 말한 뒤 찬 물병을 건네주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섰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없는 집안은 철지난 바닷가처럼 쓸렁하다. 조용하고 조용하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듯하다. 막내손자가 유치

원을 다니자 시간은 태평양처럼 널브러졌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을 견딜 수 없어 시작한 것이 캥통 줍기이다. 경자도 김노인처럼 무료한 시간을 견딜 수 없어 공원 산책을 나섰다가 미국노인이 캥통 줍는 것을 보고 무릎을 탁 쳤다. ‘바로 저거구나.’ 다음날로 바로 유모차를 끌고 공원으로 나왔다.

어제 아들녀석이 눈치채고 난리를 쳤다. 거실 소파에 쓰러질 듯 드러누웠다. 온몸에서 열이 났다. 부엌 쪽을 쳐다보니 아들녀석 먹으라고 마련해 둔 된장찌개가 다 식은 채 식탁에 그대로 놓여있다. 아침 식사를 거의 못하고 나가는 아들을 위해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밥과 국을 끓여 놓지만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가버린다. 가는 길에 맥도날드에 들러 드라이브 드루(drive through)로 커피와 샌드위치 조각을 급히 삼킬 것이다.

네파란 식탁에 둘러앉아 남편이 숟가락을 들 때까지 배가 고파도 참던 아들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기억에도 희미하다. 평생 아이들에게 마음을 붙이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늙은 에미보고 나가 살라고 하니, 껄썩한놈. 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경자는 눈에 불이 나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녀석을 믿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배은망덕한 놈. 지나 온 세월이 분하고 억울하고 허망했다.

어제 일이다. 여느 때처럼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손주들은 등교한 후, 부엌이며 거실 청소를 마친 후 집을 나섰다. 캥통을 줍기 위해서다. 손주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 없이 시간이 지나갔었다. 지난 해부터 막내손자까지 유치원에 다니자 시간이 남아돌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이 경자를 너무 힘들게 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캥통 줍기였다. 경자는 아들이 싫어할 것 같

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 일찍 퇴근하는 동혁이 그것을 본 것이었다.

“어머니, 이렇게 더운 날씨에 집에 계시지 않고 텅마주이가 뭘니까? 남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괜찮다. 운동도 되고 용돈도 생기고.”

“아니, 연금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 이제 너도 살 만하니 그거 좀 돌려다오.”

“어머니, 무슨 돈이 필요하세요? 그거 어머니 앞으로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 있어 당장은 힘들어요.”

“내가 손주들 생일에 옷가지나 사주려고 해도 수중에 돈이 없으니 불편해서 그런다. 그러지 말고 돌려다오.”

“그래요. 그럼 돌려드릴 테니 나가서 사세요.”

“뭐라고? 너, 나보고 나가라고? 이 몸쓸 놈!”

마른 하늘에 벼락 같은 소릴 들으니 경자는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진 느낌이 들었다. 한동안 멍하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아들 입에서 집을 나가라는 말이 나오다니 믿겨지지 않았다. 흥분이 되어 마음에도 없는 소리가 무심코 나왔겠지 하고 위로를 하다가도 생각하면 할수록 꽤 씁했다.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길 몇 번이고 했다. ‘아들녀석이 며느리와 한통속이 되다니’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밤새도록 앞치락뒤치락했었다.

부모자식관계란 무엇인가. 자식은 빗쟁이, 밋지 않은 도둑놈 등등의 말이 있는 것을 보면 부모는 자식에게 끝없이 뭔가를 주고 싶은가 보다. 그래,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인가? 경자는 자기도 모르

게 의문이 들었다. 경자는 어려서부터 주위에서 보고 들은 대로 살았다. 물론 지금도 거리에 버려져도 자식의 이름을 끝내 밝히지 않는 어머니가 있다. 자식에게 땅문서, 집문서 다 내놓아 사업자금을 대다 마침내 빈털털이로 쫓겨나는 부모도 있을 것이다. 자식이 달라는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느냐면서 말이다. 아무튼 경자는 자식을 위해서 그녀의 평생을 송두리째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엔 항상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잡고 있었다. 왜냐하면 홀로된 이후에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먹이고 입히지도 못 했기 때문이다. 그저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손에 쥐어지는 건 늘 입에 풀칠하기에도 모자랐다. 그래서인가 자식들이 저마다 제 앞가림을 하고 잘 사는 이즈음에도 자식들이 주는 용돈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저 건강하고 잘 살기만 빌었다. 자신을 위해서는 한푼도 쓴 적이 없었다.

부모자식관계는 이해관계도 아니고 계약관계도 아니다. 어떤 경우엔 지긋지긋해도 떨칠 수 없는 관계이고 진절머리나지만 외면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핏줄이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고부관계든 뭐든 간에 인간관계의 실상은 자잘한 손익관계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 변해버린 것 같다. 손주를 돌봐주고도 베이비시터 삐를 요구하는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며느리 신영은 행운아였다. 시어머니가 무상으로 손주를 돌볼 뿐 아니라 자신의 소셜연금까지 자진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 볼 건 없었다.

창밖을 보니 바람에 날려 자카란타 꽃잎이 눈발처럼 흩날리고 있다. 꽃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노라니 마음이 더욱 쓸쓸해졌다. 보라색

꽃잎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바라본다. 덧없는 청춘이 무더기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떨어지는 꽃잎에 화사했던 신혼 초의 라일락꽃이 겹쳐졌다. 앞마당에 봄이면 진한 향기를 뿜어내던 라일락꽃이 있었다. 아이들이 하나, 둘 태어나고 앞마당의 나무 그늘 아래 평상에서 수박을 먹으면서 까르르대던 아이들 웃음소리가 귓속에 아직도 뚜렷이 들려온다.

독자로 자라서 그런지 남편은 아이 욕심이 많았다. 자식을 생기는 대로 많이 낳아서 시끌벅적하게 살고 싶어 했다. 남편이 죽을 즈음에는 딸이 넷, 아들이 하나였다. 막내딸이 여섯 살이 되었을 때 남편은 저 세상으로 떠났다. 쉽게 눈을 감지 못하고 이 년이나 병석에서 빼만 남은 몸으로 안간힘을 쓰다가 눈을 뜬 채 죽었다. 간경화였다. 경자가 서른 아홉 살 되던 봄이었다. 남편이 저 세상으로 떠나자 어린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 건가 걱정되어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 두려움에 잠이 오지 않았다. 오 년 뒤에 둘째딸마저 저 세상으로 보냈다. 영양실조와 폐병이었다. 살릴 수 있는 병이었는데 살리지 못했다. 그때 경자는 벌겋게 달군 부젓가락으로 가슴을 지지는 것처럼 고통이 심했다.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들 다섯을 키운다는 것은 무척 힘들었다. 혼신의 힘을 다 했지만 그래도 때로 밥을 굶었었다. 배고파 우는 아이들을 부둥켜안고 엉엉 운 적도 몇 번 있었다. 억척스럽게 부지런히 일했지만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천금 같은 아이들을 잘 먹이지도 못하고 고생시키는 걸 생각하면 남편이 같이 죽자고 할 때 따라 죽지 못한 것이 한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눈망울을 볼 때 다시 기운을 차리고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 산이라면 넘어주고 물이라면 건너주마, 이런 심정으로 이를 악물고 살았

었다. 가까스로 강을 건넌다 싶으면 절벽 같은 산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런데 산 넘고 물 건너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나 싶은 이즈음에 또다른 막다른 골목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정녕 몰랐다. 아들과 헤어져 산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머느리는 물어도 대답도 없고 야단을 쳐도 묵묵부답이었다. 아무리 소리를 높이고 얼굴을 붉히며 이야기해도 오불관언 ‘너는 떠들어라’였다. 얼굴표정의 변화도 없이 경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환장하고 미칠 노릇이었다. 한집에 살면서 대화 없이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아들녀석도 마누라 눈치를 보는지 슬슬 피했다. 먹는 것도 저들끼리 조용히 먹고 슬며시 나가버린다. 주말에는 반드시 애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 외출했다. 동네 공원으로 혹은 텐트와 버너등속을 챙겨서 멀리 다녀오기도 했다.

아무도 없는 물 속 같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았다. 운전할 줄 모르니 움직이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집안은 모든 게 죽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항상 라디오를 켜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뉴스며 노래를 들었다. 세상 어디선가 또 폭탄테러가 일어났고 그에 대처하는 중요한 회의가 날마다 열렸다.

미국 동부에 있는 대학교에서는 한 외로운 청년이 무고한 학생을 32명이나 죽이고 자살했다. 양로원의 한 외로운 할아버지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목매 자살했다고 한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은 늘 어둡고 무거웠다. 누군가 죽고, 죽이고, 홍수가 나지 않으면 가뭄이 계속되어 농작물이 말라 죽는다고 했다. 지진에다 해일이 일어나 수백 명이 죽고 다치고 몇 해 전엔 한 도시가 물바다가 되

었다고 한다. 세상 소식을 들은 지 수십 년이 되지만 밝고 희망적인 소식보다 늘 좋지 않은 일이 세상에서는 많이 일어났다. 그래도 손주 녀석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면 가슴이 흐뭇했다.

창문 아래로 넓은 주차장엔 차들이 두어 대 보이고, 그 건너편에는 오래된 아파트 건물이 시야를 막고 솟아 있다. 아파트 창문들은 이 더위에도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가려져 안을 볼 수 없다. 나뭇잎이 넓은, 이름 모를 나무 세 그루가 빼죽이 서 있다. 세찬 햇살이 주차장과 건물 위에 무자비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조용하고 삭막한 풍경이었다. 고향의 여름 풍경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눈을 감으니 매미소리가 이명처럼 들려온다. 투명하고 화창한 햇볕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폭죽처럼 터진다.

‘따르릉’ 전화벨 소리에 흠칫 놀라 경자는 얼른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별일 없지?”

“그래, 더운데, 철이는 잘 크고?”

“네, 이제 유치원 다녀요.”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뭔가 하소연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지선아, 못 살겠다.”

직장에서 금방 돌아와 몸이 파김치가 되었지만 지선은 어머니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평소에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는 어머니 이기에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다. 보름 전에 잠깐 친정에 들렀을 때 어머니의 모습이 부쩍 초췌해 보여 가슴이 아팠었다.

오남매를 혼자서 키우느라 뼈골이 다 빠졌는데 미국 와서도 편히 사시기는커녕 밤청소에다가 낮에는 봉제공장 뒷일로 온몸이 쪼그라든 어머니이다. 동혁이가 결혼하고 첫 애를 낳은 후 어머니는 봉제일을 그만두었다. 소셜연금이 나오는데다 손주 키우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엄마, 무슨 일인데? 속 끓이지 말고 얘기해 봐요. 어디 아프세요?”

“마이클 애비가 나보고 나가 살란다. 그놈이…….”

“뭐라구요? 엄마보고 나가라구…… 나쁜 놈.”

“도대체 왜 그런대요?”

“글쎄다. 연금 때문인 것도 같고”

지선은 할말을 잃었다. 평생 자식밖에 모르고 살아온 어머니에게 해서는 안될 말이었다.

결혼 초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동생에게 어머니는 소셜연금을 그대로 그의 통장에 입금되게 했다. 한푼이라도 살림에 보태서 빨리 자립하라는 뜻이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돌려주겠노라는 며느리의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 막손자가 초등학교 졸업할 즈음부터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아졌고, 동혁이가 하는 페인트 사업도 주머니가 밀리고 신영도 은행에 서 승진하여 돈 걱정은 줄어들었는데도 연금은 돌려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손주들 생일이나 졸업 선물이라도 사려면 며느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기가 뭐했다. 그래서 달포 전쯤 며느리에게 소셜연금을 돌려주었으면 어땠겠냐고 넌지시 운을 떼었는데 그녀 얼굴이 썰쭉해지며 한다는 말이 “어머니 연금으로 적금도 들구 있구요. 보험비며 상조회비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데요.” 이랬다.

“엄마, 힘들면 나와 같이 살자.”

“그래, 말이라도 고맙구나.”

“혼자 속 썩이지 말고 딸한테도 효도할 기회를 좀 줘.”

“걱정마라. 철이 애비 아침밥 꼭 먹여서 출근시켜라.”

이튿날 지선이가 친절에 들렸을 때 어머니는 누워 계셨다. 지난번 볼 때보다 십년이나 더 늙어보였다. 오이지처럼 찌든 얼굴이며 굵은 등이 바람 빠진 풍선 같았다.

지난 밤에 한숨도 잠을 못 잔 것 같은 어머니는 고열에 들떠 앓고 있었다. 지선은 화가 났다. 이렇게 아픈 엄마를 두고 그냥 나가버린 동생내외가 미웠다. 그동안 속앓이하신 걸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아팠다. 아무래도 따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아프면 약이라도 사오라고 전화 좀 하지.”

미련하게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노모를 보자 화가 나고 눈물이 났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자신의 몸은 돌볼 겨를이 없었던 어머니이다. 까칠해진 얼굴 피부에다 주름살 투성이의 엄마를 바라 보노라니 가슴이 칼로 저미는 듯 쓰리고 아팠다. 어머니의 일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내 눈시울이 젖고 명치끝이 목지근해진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 그저 어머니의 삶을 속수 무책으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자신이 답답했다.

엄마에 대한 기억중에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것은 새벽 어스름에 나지막이 숨죽여 노래 부르던 어머니의 모습이다. 중학교 이학년 때지 싶다. 신문 배달을 했던 지선은 일찍 일어났었다. 이불을 들치고 일어나려는데 미닫이 창호지에 사람 그림자가 비치고 희미하게 무슨 소리가 들렸다. ‘운다고 옛 사랑이 오리요오마아는’ 한쪽 무릎을 세운 자세로 오두마니 앉아서 어머니가 소리 죽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

다. 어린 지선의 가슴에 슬픔이란 저런 것이구나 하는 느낌이 뻗속 깊이 새겨졌었다. 오남매를 혼자서 키워야했던 어머니의 어깨가 가장 무거웠던 때였다. 폐병으로 오래 앓던 둘째가 죽은 직후였다.

둘째딸 은숙이 폐병에 걸리자 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개를 잡고 뱀탕도 끓였다. 어디서 구했는지 굼벵이까지 달여서 먹였다. 그런 음식(약이었겠지만)을 만들 때 어머니의 표정은 엄숙하고 비장했다.

은숙이 소생치 못하고 죽었을 때 경자는 정말 죽고 싶었다. 죽어가 는 딸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 자신이 미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아이를 살릴 수있는 가망이 사라졌을 때 자신의 무능함에 가슴이 갈거리 찢겨졌다. 그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자식을 지키지 못한 에미의 불행에 분노했고 절망했다. 딸을 화장하고 돌아온 날 경자는 아무 것도 먹을 수 없었다. 죄책감에 온종일 몸부림치며 울었다. 오래 억눌러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빼빼마르고 헐쭉한 모습으로 죽은 그애를 생각하면 가슴이 바늘로 콕콕 찢리는 듯 아프다. 항상 잔기침을 하며 객객거리고 피를 토하던 딸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 잠자리를 땀으로 젖게 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났다. 도무지 살 수가 없었다. 남편과 자식을 연거푸 잃은 슬픔에 다가 애들을 학교에 보내기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돈이 없어도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병원에서 쫓겨나지도 않는다고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남은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어머니의 모습은 급격히 험박해졌다. 동교동 이층 양옥에서 독산동 지하 셋방까지 겨우 일 년 반이 걸렸을 뿐이다. 아버지 사후 어머니는 항상 허둥지둥하는 모습이었다. 그리

고 저녁 설거지를 마치면 어머니는 바로 나무토막처럼 쓰러져 뚫아 떨어지셨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자 어머니는 아현시장 한구석에 국밥집을 차렸었다. 벌지 않고 쓰는 돈이 곳감처럼 금방 줄어든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동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녹슨 쇠파이프 의자와 낡은 나무탁자 몇 개 놓고 시작한 아현시장 골목 안쪽 식당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주로 노동자 풍의 배고픈 손님들이 국밥 하나 시켜놓고 밥 좀 더 달라, 국 좀 더 달라하면 어머니는 거절할 줄 몰랐다. 지금 기억해보면 어머니는 식당주인이 아니라 배고픈 걸인에게 공짜로 밥을 퍼주는 교회나 저선단체에서 나온 사람 같았다. 준비한 음식물은 금방 동이 났지만 남는 돈은 없었다. 한푼 없이 재산을 날려 버린 후 어머니는 이것저것 굶은 일을 겪은 다음 동네 버스 종점 근처에서 봉어빵 장사를 했다.

그 당시 어머니는 배고픈 것도 잘 참았고 아무리 아파도 자리 보존하고 눕지 않았다. 약도 사 먹지 않으셨다. 몸살이 나서 끙끙 앓으면 서도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챙겨놓고 그 와중에 골목까지 깨끗이 쓸어놓고 일하러 나가셨다. 당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겼듯이 어머니 역시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으셨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식들 입에 먼저 먹을 것을 넣어주셨다.

그러던 어머니가 한번은 몹시 화를 낸 적이 있다. 하루는 어머니가 입에 뭔가를 넣고 있었다. 둘째가 “엄마, 뭐 먹어?” 하고 물었다. 어머니는 “응. 껌 씹는다.” 하셨다. 잠시후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뭐 먹어?” 하고 또 물었다. 엄마는 또 “아무것도 아니다. 껌이다.” 하셨다. 사단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셋째가 어머니를 보자 또 물었

다. “엄마, 뭐 먹어? 나 줘 줘.” 하자 드디어 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셨다. “이년아, 껌이다. 껌.”하고 껌을 뺨 뺨으시더니 등짝을 소리나게 때렸다. 지금은 자매들이 만나면 옛날 이야기하며 얼굴이 새빨갳게 되도록 웃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시리다.

살 만하게 된 이후에도 어머니는 욕심이 없었다. 죽을 날이 가까운데 무슨 새 옷이나, 너희들이나 사입어라며 어찌다가 용돈이라도 드리면 한사코 거절했다. 해마다 돌아오는 어머니날, 명절, 크리스마스는 물론 생일 선물조차 받지 않았다. 처음에는 용돈이나 선물 때문에 실랑이를 많이 했지만 차츰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예 준비도 안 하게 되었다. 받지 않는 어머니가 처음에는 야속하고 가슴이 아팠지만 그것이 나름대로 어머니의 사랑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며느리 신영은 심성이 무뎠었다. 요즘 여자들에 비해 다소곳하고 착하다고 할 수 있었다. 결혼조건으로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 여자였다. 물론 처녀 때는 블라우스를 다려 놓지 않았다고 엄마에게 신경질을 내고 조그만 일에도 투정을 하던 여자였다. 신영은 내심으로는 썩 달가운 것은 아니었지만 힘들게 사신 시어머니를 거부할 수가 없었을 게다. 고생에 찌든 시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는 가슴도 아프고, 잘 해드려야지 하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신영은 시어머니의 기세에 오랫동안 눌러 살아오면서 거실의 소파며 탁자의 위치도 마음대로 바꾸지 못했다. 자신의 취향대로 옮겨 놓아봤자 퇴근해 보면 또 어머니가 이리저리 배치를 바꾸어버렸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와 싸울 수도 없고 남편만 들볶았다. 먹는 것만 해도 그렇다. 피자나 햄버거로 가볍게 한끼 때우고 싶어도 어머니 때문에 꼭 찌개며 생선을 구워야 했다. 결혼 초기에는 어머니의

식성에 맞춰 한국마켓에서 김치며 생선, 두부, 콩나물 등을 주말마다 잔뜩 사왔다. 밥과 국, 김치와 나물무침이 없으면 며느리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까탈을 부리고 심하게 다툼을 했다. 그래도 신영은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어머니 뜻을 따랐다. 그러던 것이 세월이 지나 감에 따라 차츰 성가시고 짜증나는 일이 한두 가지씩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니는 요리를 좋아했다. 자식에게는 물론 친척이나 친구들을 불러모아 음식 대접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다.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 늘 음식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크게 떠드는 소리, 웃음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어머니는 특히 자식에게 맛난 것을 배불리 먹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신의 생일은 물론이고 명절이며 돌아가신 아버지 제삿날이면 시집간 딸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손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김치도 직접 담가서 딸들이 돌아갈 때 한보파리씩 싸주었다. 신영도 결혼 초기에는 묵묵히 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만들고 시누이들과 어울렸다. 그러나 때마다 찾아오는 어머니의 손님들 때문에 집에서 마음놓고 쉴 수가 없었다. 주말마다 셋째 시누이는 어머니 몸보신 될 만한 삼계탕이며 소갈비를 사들고 찾아왔다. 막내 시누이는 근처에 살기 때문에 수시로 들락거렸다. 시누이 가족들이 한바탕 휘젓고 가고나면 일주일치 먹거리가 동이 났다. 언제부터인가 주말이 되면 바깥으로 남편을 꼬드겨 나간 것이 이제는 버릇이 되어 버렸다.

아들 동혁이가 결혼한 후, 손주들을 갓난아이 때부터 먹이고 씻기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닦으며 키운 것은 어머니였다. 처음에는 동혁이 부부가 어머니 집에 들어와 사는 것 같았는데 언제부터인가는 어머니가 아들네에 더부살이 하는 것처럼 돼버렸다. 설거지며 빨래며

집안 청소까지 도맡아하는 어머니를 처음에는 그러시지 말라고 제가 하겠다고 하던 며느리도 어느덧 그게 버릇이 되어 버려 퇴근해 집에 오면 겨우 세수나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언제부터인가 신영의 짜증과 신경질이 늘어갔다. 어른과 함께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다소곳이 무릎 꿇고 앉아서 시어머니의 말씀을 조용히 들을 며느리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해마다 지내는 제사지만 몇 해 전부터 신영은 이런 저런 핑계로 친정집에 가 버렸다. 시누이내외와 조카들이 전부 참석하는 제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지기 일쑤였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며느리를 질책 한번 못 했다. 세상이 변한 것이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며느리가 드문 시대이다. 봉제사며 봉양소홀 어찌고 해 봐야 콧방귀도 안 끼는 세상인 것이다.

물론 예외가 있기는 있다.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이 많은 경우는 자식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진다는 소문이 무성한 시대이다. 어느 마을에 혼자된 어머니가 금고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며느리며 딸들이 어머니 방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황급히 금고문을 잠가버렸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다. 이윽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금고문을 열어보았더니 그 속엔 돈다발모양의 신문지가 가득 들어 있었다고 한다.

친정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신영은 짜증 섞인 투정을 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식욕도 떨어지고 생머리가 지끈거려 살 수 없어요.”

동혁은 그녀의 엄살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무슨 일이나고 물었다. 며칠 전 처제가 집으로 찾아왔었다고 했다. 그런데 처제의 옷차

림이 좀 요란했던 모양이다. 어깻죽지가 흰히 보이는 얇은 윗옷에다가 요즘 유행하는 골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처제가 거실 바닥에 떨어진 뭔가를 줍고 있을 때 마침 부엌에서 나오던 어머니가 처제의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셨다.

“아니, 사돈처녀 어찌 옷을 반만 입고 다니나?”

골반에 걸치게 된 바지 때문에 쪼그리고 앉을 때 엉덩이가 흰히 보였던 모양이다. 앞가슴도 반 이상 그대로 노출되었으리라.

“어머니, 요즘 젊은 여자들 옷차림이 다 그래요. 세상이 변했어요.”

어머니는 혀를 차며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 처제는 다시는 언니 집에 안 온다고 화를 내며 가 버렸다고 한다. 친정식구들이 어머니 때문에 불편해서 찾아오지 않고 친구들도 비슷한 이유로 방문을 거부해 하니 신영은 구식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기도 힘들 뿐더러 일일이 설명하기도 힘들었다.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자 아내도 시어머니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고부사이가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된 것은 작년 여름이었다. 지난 봄, 고생 끝에 겨우 아담한 집을 구입하게 되었다. 온 가족이 떨 듯이 기뻐했었다. 어머니도 환하게 웃으시며 대견해하셨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 집이 좋다고 자랑하셨다. 그런데 아내의 여름휴가를 이용하여 오랫동안 별렀던 여행을 다녀와서 집에 들어선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뒤뜰의 파란 잔디가 채소밭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저렇게 넓은 땅을 그냥 놀려두면 죄받는다며 한사코 양보하지 않으셨다. 그해 여름 어머니는 식탁에 풋고추며 상추를 부지런히 올렸지만 아이들과 아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오히려 신영의 두통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을 뿐이었다.

동혁이 신영에게 ‘우리도 언젠가는 늙는다’며 어머니가 무슨 낙으로 사시겠냐, 조금만 참고 살자고 다독였지만 토라진 아내를 설득하기 힘들었다. 젊어서 혼자되신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가를 잘 알지만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난감했다. 날마다 아내의 밝지 못한 표정을 견뎌야 하는 것이 고역이었다. 그렇다고 어머니를 내칠 수도 없지 않은가, 동혁은 저녁이 되었지만 집에 돌아가기 싫었다. 공연히 친구를 불러내어 좋아하지도 않는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가기도 했다. 아내에게 조용히 타일러도 보고 애원도 했지만 그녀의 냉랭한 마음을 돌이키기 어려웠다. 오히려 이렇게 살바에야 헤어지자고 했다. 혼자서 어머니 잘 모시고 살라고도 했다. 화가 났지만 아내를 무조건 비난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홀어머니에게 이제 와서 나가 살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러던 중 며칠 전 어머니는 연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설왕설래 중 불쑥 못할 말을 내뱉고 말았다. 이날 어머니는 아침밥도 차려 놓지 않고 방에서 꿈쩍을 안하신 것을 보면 충격이 심했던 모양이다.

어릴 적, 동혁이는 어디를 가든 엄마 뒤를 졸졸 따라 다녔다. 아현 시장 골목에서 국밥집을 할 때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펄펄 끓는 국물이 엮어져 허벅지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정신 없이 동혁을 업고 병원으로 달리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콧날이 시큰하다. 당신 본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오직 오남매를 키우시느라 펄펄 뛰던 어머니였다.

밤늦게까지 주무시지 못하고 뒤척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편치 않을까 가슴이 쓰렸지만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라고 말할 수 없는 자신이 싫었다.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더라도 어머니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렇게 말하지 못하는 동혁은 답답했다. 퇴근 후에 어머니 방에 들어갔지만 어머니는 쳐다보시지도 않았다. 몹시 섭섭하신 모양이었다.

그 사이 연금 때문에 속을 끓이는 어머니 소식을 들은 샌디에이고에 사는 큰딸이 보다 못해 올케를 찾아갔다.

“영호 엄마, 연금 어머니에게 돌려주지 그래.”

“네, 저도 그럴 참이에요. 그런데 당장은 힘들어요. 적금이며 보험을 그 돈으로 들고 있거든요.”

“그거 해약하고 어머니에게 드려.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사실 영호 에미에게 도움이 되면 땀지 손해 본 게 없잖아. 손주 셋을 노인네가 허리 휘어지게 키우셨잖아. 이제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니. 용돈은 못 드릴지언정 나라에서 주는 연금을 자식이 가로채서야 쓰겠니?”

언성이 높아지고 티격태격한 끝에 간신히 연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싸늘해진 집안 분위기가 더욱 냉기가 깊어졌다.

어머니는 성격이 단순했다. 즉 직선적이며 분명한 성격이었다. 때로는 신경질적이며 섬세한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단순, 명쾌한 편이었다. 천성적으로 낙천적이며 농을 좋아하고 어찌보면 조금은 경박하고 유쾌명랑한 성격이었다. 사람들을 만나면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고 크게 웃으셨다. 그러던 분이 사흘 너머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끄끙 앓으셨다. 집안 공기가 서릿발같이 싸늘해졌다.

일주일 후 경자는 다시 공원으로 나갔다. 김 노인이 먼발치로 보였다. 그는 경자의 근황이 궁금해 매일이다시피 공원에 나와 기다렸나 보다. 경자를 보자 그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젊고 발랄한 여자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손에

풍선을 들고 뛰어다녔다. 한 무리의 어린아이들이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까르르' 하얀 이를 내보이며 웃었다. 웃음의 파도가 숲을 너머 멀리로 사라졌다. 남편인 듯한 남정네들은 고기를 굽고 있었다. 경자는 그 모습을 한참 쳐다보았다.

“몸은 어떠시우?”

“열은 좀 내렸는데 아직 어지럽네요.”

“더 쉬시지 않구.”

다람쥐 한 마리가 오솔길을 달려갔다. 꼬리가 크고 털이 아름다웠다. 경자는 공원에서 주인없는 개를 돌보거나 다람쥐에게 땅콩을 주었다. 개나 고양이나 다람쥐나 도통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경자는 며칠 동안 앓으면서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았다. 고달픈 생이었지만 아이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지내온 것을 감사했다. 잘 먹고 입히지 못한 자식들이 성장하여 제 앞가림을 하고 사는 것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다. 한편 섭섭하기도 했다. 저마다 제 앞가림을 하고 살게 되자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 씁쓸했다. 이제 40이 넘는 아들을 보내야 할것 같았다. 너무 오래 품안에 두었다. 처자식과 오순도순 사는 것만 해도 효도지 꼭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애써 스스로 위로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아들 집에서 나와야겠어요.”

“그래요? 나도 조만간 노인가파트에 나가 살 계획이요.”

“왜요? 아들부부가 그리 잘 한다면서요?”

“잘 하긴요? 그저 아직 통장에 돈이 좀 있으니…….”

김노인은 퇴직금에다 서울의 단독주택을 판 돈이 고스란히 은행에 입금되어 있었다. 물론 생활비조로 얼마를 내놓지만 아직 목돈은 그

대로 가지고 있다고 했다.

며느리와 아들이 아침 저녁으로 문안인사를 빠뜨리지 않고, 때마다 “뭘,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라고 간살을 떨지만 언제 태도가 바뀔지 모른다고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에이, 설마 그러기야 하겠어요.”

유식한 김노인의 말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많이 변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진실한 인간관계가 붕괴된 시대라고 한다. 사랑도 우정도 모두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비분강개하는 김노인이 안타까웠다. 폐기처분되는 것이 강통뿐만은 아닌 듯했다.

공원 저편에서 날렵하게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바퀴달린 스케이트를 탄 젊은 여자였다. 탄탄한 다리가 구릿빛으로 빛나고 경쾌하게 미끄러져 오는 모습을 보니 ‘아름답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다시 한번 산다면 경자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느낌이 가슴을 스쳐 지나갔다.

경자는 소중한 것을 재생하고 싶은 듯 강통을 하나 주워 봉지에 넣었다. 하늘은 더할 수 없이 청명했다.

소록도(少鹿島)길(道)

연규호

1

전라남도 고흥반도 끝에 있는 ‘눈망울이 큰, 작은 사슴처럼 생긴 섬’ 소록도.

“아! 문둥병(나병, 천형병, 한센씨 병) 환자들이 사는 곳?”

“그렇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버림받고 외롭고 슬프게 외딴 섬에 갇혀 한을 품고 평생을 그곳에서 살다가 죽어 그곳에 묻힌다는 섬, 소록도, 그리고 그리로 가는 길……. 나는 지난 1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1996년 4월 15일 이후, 피눈물을 흘리며 42회나 소록도를 찾아갔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경기도 안성을 떠나 충청남도 천안에서



충북 청주 출생. 연세대의 졸업. 미국내과전문의사로 개업중. 미주문협, 펜(한국, 미국)클럽, 오렌지 글사랑 회원. 해외동포문학상으로 등단. 장편소설 『안식처』 『샤이엔』 『거문도에 핀 동백꽃』 『마야의 꿈』 등으로 청하문학상 본상, 미주펜문학상 수상.

www.yunkyuho.com

호남선 기차를 타고 전라남도 광주에 도착하여 다시 버스를 타고 순천에 도착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완행버스를 타고 고흥군 녹동 항구로 가 작은 여객선을 타고 소록도에 도착하는, 이 먼 길이 바로 소록도로 가는 길입니다.”

소록도로 가는 길은 멀고도 외로웠기에 길가에 뿌린 나의 눈물만 도 태평양을 가득히 채웠을 것 같다. 문동병 시인, 한하운의 애절한 시, ‘전라도 길’을 오십 번쯤 외우다 보면 나는 어느새 멀리 전라남도 고흥반도의 끝에 있는 녹동 항구에 도착하곤 했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낮선 친구 만나면/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천안 삼거리를 지나도/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찢름거리며/가는 길……// 신을 벗으면/버드나무 밑에서 지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내가 안성군청 축산계의 말단 직원으로 근무할 때, 소록도로 출장을 간 일이 있었다. 솔직히 떨리는 마음이었다. 손과 발이 몽크러지고 눈이 감긴 문동병 환자들이 생각났을 뿐 아니라 ‘문동병 환자들은 사람을 죽여 간을 빼어 먹는다고 하더라!’라는 말이 떠올라 더 두려웠다. 그러나 14시간이나 걸려 도착한 소록도는 나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아름다운 섬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바다 역시 한쪽의 그림같이 아름다워 나는 “아니? 소록도는 지상의 낙원이구나!”라고 감탄을 했었다.

녹동 항구에서 불과 600미터 떨어진 이 섬에는 향나무, 황금편백,

노송, 삼나무, 히말리아시다, 동백, 팔손이나무, 치자나무, 피라칸타, 금목나무 등 백여 종이 넘는 관상수가 뿔뿔이 들어서 있었으며 맑고 깨끗한 청정 해역에는 도미, 도다리, 농어, 새우, 문어, 피조개 등이 대량으로 서식하며, 남쪽 해안에는 150여 미터의 해수욕장이 있어 나는 순간적으로 그 흥취한 문둥병을 잊고 있었다.

그러나 섬 입구에 서 있는 순라탑(殉癩塔 6·25 전쟁 중에 죽은 문둥병 환자들을 기념하여 세운 탑), 애환의 추모비(해방의 소용돌이 중에 죽은 문둥병 환자들을 추모함), 그리고 소록도 개원 40주년 기념비를 보면서 ‘아, 내가 정말로 말로만 듣던 소록도에 와 있구나!’ 하는 실감이 났다. 국립소록도병원 뒤편에 조성된 중앙공원으로 오르면서 백의천사가 창으로 나병균을 무찌르는 모습을 한 구라탑(救癩塔)을 본 기억은 지금도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 당시 국립소록도병원에는 약6천여 명의 환자와 2백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희망도 없이 세상을 원망하며 살고 있었으며, 이 작은 섬 속에는 말 못할 사연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다. 비록 아름다운 섬이라고는 하나 나는 어서 이곳을 빠져 나오고 싶었기에 부여된 일이 끝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소록도를 떠났고, 그 후 소록도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렇던 이 소록도를 나는 지난 10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찾아가 야하는 운명의 사나이가 되어 한하운의 전라도 길, 그 슬픔의 길을 눈물을 흘리면서 걷고 또 걸어야만 했다.

2

나는 안성에서 태어났다. 안성군청 축산계원이었던 아버지가 1950년 6.25 전쟁 중에 인민군에 의해 총살을 당해 홀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을 하여 안성농고를 졸업했고 월남전쟁에 참전했다. 제대 후

아버지의 대를 이어 역시 안성군청 축산계에 취직을 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23세가 되면서 안성 시골 처녀와 결혼을 하여 가장이 되었다.

안성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났으며 훌륭한 아들 셋을 두었기에 남들은 나를 부러워했다. 큰아들은 서울공대에 그리고 둘째아들은 서울상대에 입학하였음은 물론 졸업 후 각각 큰 회사에 취직을 했다. 게다가 큰아들은 사장 딸과 결혼을 하여 미국 뉴욕으로, 작은아들도 역시 로스앤젤레스의 지사로 파견 나가게 되었다. 어릴 때도 그들은 엄마 손에서 자랐다. 그러나 늦게 태어난 셋째아들은 세상에 나온 지 일 년 만에 엄마를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기에 나는 그를 측은하게 여기며 더 사랑했다. 더구나 그가 고등학교 이학년 때는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 안성 집에는 우리 둘만 덜렁 남게 되었다.

“아버지, 두 형님이 모두 성공하여 미국으로 가셨으니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농사를 짓겠습니다.”

“막내야! 너도 형들처럼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거라. 의사 공부를 하거라.”

“아닙니다. 아버지처럼 농사꾼이 되렵니다. 우리 가문의 전통이 농업이니깐요.”

“아버지처럼?”

사실이 그러했다. 아내와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까지 미국으로 가버리고 나니 셋째아들은 내게 아주 중요한 존재였다. 고등학교 이학년이어서 밤낮없이 대학입시 공부도 해야 했지만, 밥도 하고 빨래도 하며 농사일도 같이 해야 했기 때문이다.

가을이 되었다. 웬일일까? 아들의 손등과 눈가장자리의 피부가 물러지며 움푹 파지고 있었다. 그뿐인가. 눈썹도 빠지고 있었다. 보다 못해 동네 의원에게 가서 진찰을 받으니 그냥 피부병이라고 하며 연고

를 주어 발랐지만 좋아지기는커녕 피부는 점점 더 흐물흐물해지며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다. 안성보건소 의사가 유심히 보더니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라고 했다.

“혹시, 한센씨 병이라고 아시나요? 나병이라고도 하지요.”

“예, 한센씨 병? 아니 문둥병?”

“그렇습니다. 나병이 틀림없습니다. 보건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나병이라니? 결코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의사를 원망했다.

‘아니? 문둥병? 문둥병? 그렇다면 언젠가 소록도에서 보았던 그 문둥병 환자들처럼?’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며 다시 한 번 부인했다. 꿈속에서 나는 사람을 잡아 간을 빼내어 우직우직 씹어 먹고 있는 문둥병 환자를 바라보았는데, 뜻밖에도 그는 나의 아들, 홍조였다.

“홍조야! 아냐! 아냐! 어찌다, 네가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나? 어째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 아들이 문둥병에 걸렸단 말인가!”

나는 소리쳤다. 의사들은 “문둥병은 단지 박테리아에 의한 전염병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으나 나는 ‘하늘이 내려준 벌이요, 전생에 지은 죄의 댓가’라고 생각했다.

학교에서도 수군거리며 아이들이 가까이 오지를 앓았으며 담임선생이 찾아와 더이상 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통보를 했다. 안성보건소에 정식으로 등록을 했더니 기회를 봐서 소록도나 여수에 있는 나병 요양소로 보내겠다고 했다. 미국에 있는 두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다.

“아버지, 나병은 집에 두면 안 됩니다. 어차피 소록도나 여수로 보내세요.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 드릴 테니 일은 하지 마세요.”

“막내를 소록도로 보내고 나더러 집에서 쉬라고? 내 나이 고작 51세인데…….”

안성 땅에도 봄이 찾아오니 개나리도 피고 철쭉꽃도 피었다.

“4월 15일까지 아들을 소록도로 보내시오. 국가에서 먹여주고 치료해 줍니다. 아시겠죠?”

보건소 직원의 강압적인 말에 나는 셋째아들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죽은 아내와 최근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생각났다.

“셋째야! 나는 너를 그곳에 못 보낸다. 차라리 내가 가마! 가도 가도 끝도 없는 황톳길을 내가 가마!”

“아버지! 제가 가렵니다. 아버지의 죄도 아닙니다. 단지 전염병일 뿐……. 제가 가렵니다.”

1996 년 4월 15일…….

큰 가방 두 개를 들은 아들과 나는 안성에서 버스를 타고 천안으로 가, 그곳에서 호남선 열차를 타고 광주로 갔다. 차창으로 보이는 논과 밭, 그리고 건물들이 나의 눈을 두드리고 있었다. 눈물이 흘러 뿌영게 보이는 것이 마치 지옥으로 가는 것 같았다.

모자를 눌러 쓴 아들을 기차에 탄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아들은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이런 판국에 책을 본들 눈에 들어올까?’ 나는 셋째아들이 너무나도 대견스러워보였다. 녹동 항구에는 꽤나 많은 여관들과 횡집이 여기저기에 있었다. 하루라도 아들과 더 같이 있고 싶어 나는 일단 여관으로 갔다.

“소록도 국립병원에 입원하러 오셨군요?”

여관집 아주머니의 눈 가장자리에 눈물이 맺혔다.

한국 최남단의 작은 여관방에서 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잠을 청했

으나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울퉁불퉁 돌아난 아들의 피부에서 따뜻한 체온이 전해 왔다.

“아- 아들이! 비록 네가 문둥병 환자라고는 하나 너는 내 아들이다! 전생에 지은 죄를 사죄하마. 네가 내 대신 천벌을 받고 있구나. 내가 받아야 하는데…….”

나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어 보았다.

3

아침에 눈을 떠 보니 아들은 곁에 없었다.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 보니 그는 불과 60미터밖에 안 되는 바다 저쪽에 아련히 떠 있는 ‘슬픈 눈망울을 가진 작은 사슴섬 소록도’를 바라다보고 있었다. 작은 파도들이 녹동 항구를 향해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10분도 안 되는 향해 길이건만 한번 그곳에 들어가면 평생을 보내다가 그곳에 묻혀야 하는 길이었다.

‘아- 이곳에 들어가면 아들과는 영영 이별이구나.’ 나는 복받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들은 나의 손을 잡고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한10년이면 저도 완치되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버지, 기다려 주십시오.”

“뭐라고? 10년이면 완치된다고?”

나는 믿기지 않았지만 아들의 말을 믿고 싶었다.

이것저것 쓰고 묻고 왔다갔다하면서 서류 작성을 끝냈다. 이제 아들은 정식으로 국립소록도병원 환자가 되었다. 병원 직원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아들이 살 병원 숙소를 안내하여 주었는데 놀랍게도 현대식으로 지은 건물에 수세식 변소와 샤워 시설도 있었으며 환자들 식당도 아주 깨끗했다.

“걱정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한식구입니다. 걱정마시고 가십시오. 아버지님…….”

같은 방에 기거한다고 하는 문둥병 청년이 말했다.

“면회는 한 달에 한번만 허락됩니다. 그리고 규정상 환자를 면회할 때는 1.5미터 밖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열심히 치료하면 음성나환자가 되어 사회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님.”

청년은 연이어 말했다.

“아버지! 이제 찾아오지 마세요. 잘 적응하고 있을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침내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나의 손을 잡았다.

“차라리, 내 간을 먹고 문둥병에서 회복되거라.”

나는 소록도 바닷가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으나 그 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멀리멀리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고흥, 순천, 광주, 천안을 거쳐 안성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첫 소록도 방문이었다.

그 후, 나는 눈물을 흘리며 안성, 천안, 광주, 순천, 녹동을 거쳐 소록도를 계속 방문했다.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그리고…….

그러나 소록도를 찾아 갈 때마다 나는 더더욱 울고 울었다. 아들의 얼굴과 손가락 그리고 발가락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4

그래도 좋은 소식이 내게 있었다. 뉴욕으로 간 큰아들이 승진을 해 롱 아일랜드에 큰 저택을 구입했다는 것이었다. 그뿐인가. 로스앤젤레스로 간 둘째아들도 현지 부지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스페인 계통의 백인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편지 속에 큰아들과 마찬가지로 이만 달러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미국으로 초청합니

다. 오셔서 같이 사십시오!”라는 초청장까지 곁들여 있었다.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였다. “아! 강석호씨, 아들들을 잘 두어 돈도 받고 이젠 미국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나…… 부럽군요.”

생각해 보니 그동안 안성, 천안, 광주, 순천, 녹동을 거쳐 소록도를 찾아 가는 나의 방문길이 7년이나 되었다. 안성과 소록도에 봄이 오면 진달래가 피고 철쭉꽃이 피었으며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동백꽃이 어김없이 피었다. 붉은 동백, 흰 동백…….

2003년 봄이 되었다. 41번째 소록도 방문에서 나는 물골이 더 흥해진 아들을 바라다보았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려나감은 물론 찌그러진 얼굴에는 우울함과 인생에 대한 절망이 완연하였으며 가끔 거친 말을 내뱉곤 하였다.

“아버지! 이젠 더 찾아오지 마세요. 오셔도 이젠 안 만나겠습니다.”

“뭐라고?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나는 눈물을 흘리며 소록도를 벗어나왔다. 녹동 앞바다에 투신이라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으나 용기가 없었다. 안성 집으로 돌아오니, 큰아들이 보낸 편지 속에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 손자들의 재물을 보러 오십시오.”

‘와! 드디어 미국에 가는구나. 아들을 보러. 아니 손자를 보러.’ 나는 감격하여 그날 밤을 꼬박 새우다가 새벽녘에서야 겨우 잠을 잘 수가 있었다. 다음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눈을 뜨고 일어나려고 하였는데 ‘웬일일까?’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으며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간신히 기어서 전화통에 다가간 나는 친구 집으로 겨우 전화 다이얼을 돌렸다. 그리고 “나 석호야!”라고 한마디를 한 후 방바닥에 나가 떨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안성도립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으며 친구와 그의 아내가 나를 바라다보고 있었다.

“석호야! 중풍을 맞았다는구나! 겨우 목숨을 건졌어. 너희 아들들에게 알려 주마!”

그러나 미국에 있는 아들들은 물론 소록도에 있는 아들도 찾아오기가 힘들었다.

“허! 아들들, 미국에 있어봐야, 다 헛거여. 돈 가지고 되나. 부모 효도는 안 되는 거여.”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찼으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기에 내 마음은 공허함과 절망뿐이었다. 입원 닷새가 되는 날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방으로 들어 온 방문객이 있었다.

“아버지! 저요. 셋째아들, 홍조입니다.”

“뭐라고? 홍조라고? 네가? 네가 왔구나!”

나는 잘라지고 뭉툭해진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던 배가 먼 곳에서 반짝이는 등대를 발견한 듯 나는 기뻐다. 찌그러진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보였다. 그러나 아들은 간호원에 의해 발각되어 병원 수위로부터 욕실을 들으면서 밖으로 쫓겨나갔다.

“아니! 문둥이가 여길 어떻게 들어왔나! 빨리 나가라! 아니면 너는 죽는다.”

“죽다니? 내 아들이 왜?”

나는 소리를 쳤으며 순간 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절룩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나를 도와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아들 셋이 있으면 뭘 해! 차라리 공부를 못해 농사짓는 아들이 더 난 거여!”라고 조롱을 했다.

깜깜한 밤이었다. 밖에서 인기척 소리가 나더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셋째아들이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이 어두워지니 아버지를 찾아 들어왔다고 했다.

“아니? 네가 여길 어떻게?”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손가락 두 개와 눈썹이 송두리째 없었다.

“아버지! 회복되시는 대로 미국에 있는 형님들에게 가세요. 완전히 회복이 될 겁니다.”

“미국에 가? 너를 여기 두고?”

나는 천장을 바라다보았다.

무려 8개월만에 나는 지팡이를 짚고 혼자 밖으로 나다니게 되었으며 마침내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나 혼자 밥해 먹고 빨래하기도 힘들었기에, 아니 너무나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택한 길이었다. 미국으로 가기 전 다시 한 번 셋째를 보고자 소록도로 가는 버스를 탔다. 42번째 찾아 가는 소록도 길이었는데 전혀 다른 길이었다.

“이번에 가면 언제나 여길 또 오게 되나? 아마 영영 못 올지도…….”

“아버지 이번에 미국에 가시면 형님들이 잘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 영원히 그곳에서 사십시오.”

아들과 이별을 하고 돌아오는 길은 마치 수만리 길같이 멀고도 멀었으며, 텅 빈 안성 집에 돌아오니 공허감만 가슴에 가득 찼다.

5

2003년 11월 나는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는데 둘째아들과 사진으로만 보았던 스페인 며느리도 같이 나와 나를 환영해 주었다. 임신을 하여 배가 부른 외국여성, 며느리에게 신세를 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으나 며칠을 같이 보내면서 디즈니랜드, 할리우드를 구경하면서 한가족이라는 느낌을 갖기 시작했다.

한 달 후 큰아들이 와서 뉴욕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뉴욕은 또다른 도시였으며 L재벌의 딸인 며느리는 말이 며느리였지 함부로 대하기 힘든 거인이었다.

아들의 저택, 이층에서 바라다본 롱아일랜드의 대서양 바다는 마치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았다. 어떤 때는 문득 소록도 앞 바다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셋째아들이 손을 흔들며 나를 부르고 있는 듯했다. 가끔 용돈이나 주며 시아버지인 나를 쉽게 대접하러는 며느리와 영어로만 대하는 손자와의 관계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었다. 혼자 있는 저녁 시간에는 한국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지내다가 언제부터인가 나는 버스를 타고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찾아가기 시작했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인자하다는 하나님이 왜 순진한 나의 아들을 문둥이로 만들었단 말이나? 말도 안 되지!’ 나는 기독교와 목사들이 싫었다.

2005년 2월 나는 그래도 정들었던 뉴욕을 떠나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되돌아왔는데 뜻밖에도 외국며느리가 나에게 더 편했다. 비록 말은 안 통했지만 외국며느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절룩이는 나를 아버지처럼 대해 주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 타운에 버스를 타고 가 친구도 사귀었으며 교회에도 다시 찾아갔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라는 복음성가를 자

주 불렀다.

“그래, 잠시 머물 세상…… 천형병을 앓고 있는 셋째나 중풍으로 절룩거리는 나 또한 어서 이 세상을 떠나고 싶구나.”

사람들은 나를 보고 고향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한다고 우울증 환자 취급을 했다.

며느리들도 질투가 있기 마련이었나 보다. 아니면, 뉴욕에 사는 자존심이 강한 맏며느리가 외국여성인 동서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나를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별것 아닌 히스피닉 여자보다 못 하다는 평을 듣다니…… 안 되지!’ 맏아들은 거의 강제적으로 나를 또다시 뉴욕으로 데리고 갔다. 아무리 집이 좋은들 마음이 불편한 뉴욕에서의 생활은 외로움의 연속이었다. 이번에는 내가 부탁을 해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되돌아왔다.

이해 못 할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갑자기 생각난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함인가? 자신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라는 질문에 예수는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고 창조주의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라고 대답한 설교였다.

“무엇이라고요? 그렇다면 나이 16세에 문둥병에 걸려 멀리 소록도에 가서 한을 품고 살고 있는 내 아들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나요? 아니면 내 아들의 죄요?”

나는 열을 내어 목사에게 물었는데 그는 “당신도 아니고, 당신의 아들도 아닙니다. 단지 창조주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무슨 소리요? 빌어먹을!”

나는 통명스럽게 한마디를 내뱉고는 교회당을 빠져 나왔다.

나는 둘째며느리에게 간청을 했다. 다시 나를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아니, 영주권이 곧 나올 텐데요.”

“아냐! 나 막내아들이 보고 싶구나.”

결국 2년 8개월의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나는 안성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 그동안 내게 있어서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결코 미국사람이 될 수가 없었다. 오로지 막내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6

안성으로 돌아온 날이 바로 2006년 7월 7일이었다. 주인없이 비어 있던 안성 집은 두 팔을 벌리고 나를 마중했다. 여기저기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지만 마음은 편했다. 그날 저녁, 나는 ‘내일 아침에는 꿈에 보고 싶은 막내아들을 찾아 소록도로 가리라’ 하고 결심을 한 후 잠에 빠졌는데 공교롭게도 밤늦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장마로 변하여 무려 일주일이나 계속되었기에 소록도로 갈 수가 없었다. 마침내 장마가 그쳐 나는 43번째 소록도 길을 떠날 수가 있게 되었다.

7월 15일이었다. 아들을 본다고 하니 가슴도 설레었으며 모처럼 기분이 좋았다. 마치 소풍을 가는 기분으로 안성을 떠나 녹동 항구에 도착하니 아직도 대낮인 2시 45분이었다. 곧장 연락선을 타고 소록도로 갈 수가 있었지만 나는 처음 아들과 같이 하루를 묵었던 그 여관에 가서 하룻밤을 자기로 했다.

“오랜만에 아드님을 보러 오셨군요. 그런데 웬 지팡이를?”

여관집 아주머니는 나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이제 녹동과 소록도 주민들은 화해를 했으며 저 다리를 통해 자유롭게 걸어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인정이 담백 담긴 그녀의 시선이 가슴

에 닿았다.

2년 8개월 만에 나는 소록도 면회소에서 아들을 만나게 되었다.

“당신의 아들, 강홍조씨는 여기에 없습니다. 나환자 마을로 갔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마을로 가니 아들은 근처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목사님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단숨에 중앙교회로 달려갔다. 교회당 문앞에서 몇 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한결 같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길이 살리라. 길이 살리라. 저 생명 시냇가에 살리라.”

며칠 전에 죽은 문둥병 환자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검은 옷을 입은 막내아들은 목사님을 도와 죽은 시체 곁에 서 있었는데 얼굴이 몹시도 밝아 보였다.

“아버지! 아버지! 언제 오셨습니까? 아버지! 기뻐해주세요. 저는 이제 음성나환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 음성나환자? 그러면 나병이 치료되었단 말이나?”

“예. 10년이면 낫는다고 하였지요. 10년…….”

“아! 하나님! 내 아들이 치료되었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고 있었다.

“아버지, 내게는 할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구?” 언젠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느 목사가 내게 한 말이 생각났다.

손과 발가락이 잘려 나가고 코가 몽글어진 나의 아들을 통해 나는 소록도란 섬은 절망과 고통만이 있는 곳이 아니고, 외로움과 절망이 녹아 없어지고 대신 위로와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문둥병 환자들의 낙원임을 알게 되었다.

7

엄마 없이 자란 것도 서러웠는데 생각지도 않은 문둥병 환자가 되었을 때, 아들은 절망 속에서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사람들과 학교 친구들의 냉대를 받으며 소록도로 들어온 아들은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보았을 때는 인생을 포기하려고까지 했었다. 그러나 불쌍한 아버지를 위해 굳게 참고 견뎠으며 은은히 들려오는 중앙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며 교회를 찾아가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목사님을 통해 문둥병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다.

한 분의 얘기는 전라남도 여수, 애향원 나병요양소에 있는 1000여 명의 문둥병 환자들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눈물어린 순교에 관한 것이었다. 좌익 학생들에 의해 두 아들을 잃은 손목사는 1950년 6.25 전쟁이 나면서 그는 피신하지 않고 나환자들을 돌보다가 끝내 총살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벨지움 신부 다미엔의 죽음이 더욱더 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1873년 하와이, 몰로카이섬으로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찾아간 다미엔 신부는 하루에 12명 이상씩 죽어가는 그 섬에서 10년간 전도를 했다. 그러니 어느 누구 하나도 기독교 신자가 되지 않았다. “당신은 문둥이가 아니니 우리 문둥이를 알 수가 없소.” 문둥이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 저를 문둥이로 만들어 주소서.” 그의 기도대로 그는 문둥이가 되었으며 그 후 3년 만에 800명의 신자가 생겨났다. 다미엔이 죽은 후 몸은 벨지움으로, 병자들을 어루만져 주었던 오른쪽 손은 몰로카이섬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2005년 11월, 40년 동안 소록도에서 헌신하여 온 오스트리아의 두 간호사들이 70세가 넘어 편지 한 장을 써 놓고 돌아갔다고 하였을 때, 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을 했다고 한다.

“두 분이 했던 일의 일부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들이 소록도 병원, 전문 의사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

“강홍조! 당신의 몸에는 더 이상의 나병 균이 존재하지 않는다네. 음성 나환자가 되었어. 축하해. 축하해.” 담당의사는 그를 꼭 껴안았다.

“예? 음성이라고요?” 나의 아들, 강홍조는 감격하여 울고 말았다고 한다.

“아버지, 내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비록 손가락과 발가락은 떨어졌으나 내 아들은 이제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으며 아버지를 껴안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고, 문둥병 환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43번째 찾아온 소록도의 길……. 이 길이 마지막이 되었다.

“그래, 아들이! 네게 주어진 너의 길을 나도 같이 가자꾸나. 여기 소록도에서…….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뿐이라고 하였으니 이젠 너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영원한 길만 있을 뿐이다.”

시인의 봄날

조정희

남편이 죽던 그 해 겨울은 참으로 길었다. 마치 봄이란 계절은 오래 전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다시는 다가오지 않을 듯이 음산하고 흐린 날이 지속됐다. 남가주의 겨울이래야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 적도 없다. 그저 눈 대신 찬비가 11월에서 2월까지 자주 내리는데, 이곳의 이상 기온이라면서 1월 한 달은 뱃속까지 시릴 정도로 건디기 힘든 날씨였다.

사철 눈부신 태양으로 뜨거운 기온에 익숙한 여기 엔젤리노들은 별로 계절 감각이 없다. 뚜렷한 동복 하복의 구분이 없이 옷도 긴 소매의 적당히 얇은 춘추복을 즐겨 입는다. 오히려 밤낮의 기온 차가



1967년 숙명여대 불문과 졸업. 1987년 미주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바다와 목마」로 입선. 1998년 한국 『라 뽕뽕』에 「사막에도 별은 뜨는 데」로 추천 완료. 2003년 소설집 『그네타기』 발간. 미주한국 소설가협회장 역임. 현 미주문인협회 이사.
<http://myhome.mijumunhak.com/chochunghee>

심해 외출 시 스웨터나 윗도리를 언제나 차에 놔두거나 지참하는 것이 보통으로 돼 있으나 늙은 사람들은 겨울철에 조금만 온도가 내려가도 어깨가 움츠려들고 두꺼운 외투들을 꺼내 입는다. 그다지 늙지 않았더라도 한국을 떠나 여기서 살아온 햇수가 길면 길수록 추위를 견디는 면역은 점점 더 약해지는 모양이다. 나 역시 차츰 그런 흉내를 내고 있으니 말이다.

사실 내가 처음 이곳에 이민 왔을 당시는 겨울이 전혀 겨울 같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 거리마다 찬란한 오색 등으로 불을 밝히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져도 날씨가 미적지근한데다 집집마다 잔디는 여전히 푸르고 여름옷을 걸치고 있으니 무슨 겨울인가. 겨울은 싸늘한 공기가 뺨을 에이고 눈이 내려야 제격인데, 반소매 티셔츠 차림으로 한낮을 지내는 것 자체가 겨울답지 않았다. 허긴 그 겨울에도 어깨를 꾸부정하고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거리에 나온 노인네들을 보고 이게 뭐 춥다고 저렇게들 오금을 펴지 못할까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남편이 죽던 그 해 겨울이 바로 그랬다. 지금까지 없던 털 코트를 장만하고 집 안에서도 속내의를 찾아 입을 정도로 으스스한 게 정말 따뜻한 봄은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가 벌써 몇 년인가. 십 년이란 세월이면 이제는 당시의 참혹함이나 끔찍스러운 정경이 잊혀질 만도 한데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만 오면 아직도 내 몸이 얼어붙듯이 모든 근육이 그때처럼 굳어지는 것이다. 특히 날씨가 우중충하고 을씨년스러운 날이면 더 생생히 그 기억이 머릿속을 뒤집어놓으면서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이다.

애들 모습이 변하고 주변 강산이 달라질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남편 죽던 마지막 날의 정경이나 그 해 겨울에 느끼던 그 감정이 일기 시작하면 그 느낌을 가라앉힐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 떨치고 일어나

남편의 산소로 가는 길밖에는 별다른 어떤 방도가 없다. 오늘도 아마 그곳에 다녀와야만 이 헛헛증이 사라지고 정상의 내 위치를 찾을 듯 싶다.

도로 포장도 안 된 길을 찾아보기 힘든 엘레이 주변에서 흙바닥 길에 울퉁불퉁하게 돌이 빠져나온 곳은 유일하게 벌링톤 골목뿐이다. 길만큼은 어디나 잘 닦아놓는 미국의 큰 도시에서 엘레이 다운타운 근처에 있는 히스패닉들이 밀집해 사는 그곳은 미국의 지역이 아닌 것처럼 거리가 지저분하고, 대부분 멕시코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들리는 말도 스페인어뿐인 지역이다. 그런 만큼 범죄도 빈번히 일어나곤 하던 우범 지대에 남편과 나는 8유닛짜리 수익성 아파트먼트를 갖고 있었다.

건물 관리인을 두기에는 너무나 작은 규모의 아파트였다. 남편은 집 안팎의 고장 난 부분이나 수리할 곳을 잘 찾아 고쳐놓곤 하는 핸드맨 기질이 풍부한 사람이라 그 아파트도 손수 돌보는 것을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미있어 했다. 남에게 맡기면 수리비용이 더 나가야 하지만 자신이 노력해 알뜰하게 수입을 챙긴다는 면에서도 꽤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다.

돈은 벌어본 사람만이 그 소중함을 알 수 있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본 사람만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듯이 남편은 매달 그 아파트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몽땅 저금통장으로 들어가 두둑해지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아내인 내게도 나누지 않고 혼자서 은밀하게 즐겼다. 그래서 그는 월말에 아파트세를 수금하러 갈 때도 직장에서 퇴근해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인 8시가 지나서 가곤 했다. 세입자들이 모두 히스패닉들이나 까닭에 늦은 시간에야 집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연유도 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이런저런 이유들이 모두 그가 일찍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렇게까지 돈에 매달려야 할 만큼 궁핍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는 엘에이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 많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혜택을 포함해 정기적인 금액을 딱딱 들여오곤 했다. 그리고 나 역시 클렌데일 어드밴티스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였다. 여자 수입으로는 꽤 넉넉한 편이라 나 혼자 벌어서도 두 아이 교육시키며 연중 두어 번 휴가도 가질 수 있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아파트 매니저도 두지 않고 남편 자신이 월세 수금까지 하러 다녀야 될 만큼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남편은 그 일을 자기의 부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며 꼼꼼하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남에게 맡겨 일을 시키면 일의 결과에 대해 만족을 하지 못하곤 했다. 세입자들로부터 어디가 물이 샌다거나 고장 난 신고를 받으면 당장 달려가 고쳐줘야만 직성이 풀려서 남을 부르면 어느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즉시 고칠 수가 없어 항상 자신이 손수 하는 것을 더 편리하게 여겼던 것이다. 어쨌든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돈은 고스란히 자기의 몫인 것이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었던 것이다.

불어가는 돈은 그를 무척 행복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아파트 관리를 하는 일이 즐겁고 재미있다 보니 매일 직장에 나가 시간에 매어 누구의 지시를 받는 일은 도리어 귀찮아졌다. 그는 집안 살림도 아내보다 훨씬 잘해서 군데군데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밥하고 빨래하는 일까지도 척척 해냈다. 아침 식사나 점심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은 내 솜씨보다 아빠의 손맛을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까닭에 언제나 그의 담당이었다. 여자 이상으로 손끝 야무지게 살림을 하다 보니 그 일만으로도 하루 해가 모자랄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출근하는 직장은 그만두었다. 아파트 매니저와 전업주부는 남편이

택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직업 타이틀이었다.

내가 저녁 당번이라 오후부터 일을 해야 할 때는 저녁 식사도 만들고 설거지까지 해냈다. 그의 손은 항상 물에 젖어 불은 듯 퉁퉁 부어 있었고, 내 손은 손가락이 가늘고 길어 하얀 것이 그야말로 섬섬옥수였다. 여편네와 남정네의 역할이 바뀌었는데도 그와 나는 전혀 갈등이 없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기만 했다. 특히 정기적으로 시간 맞춰 나가야 하는 내 직업상의 여건으로 볼 때 집안에서 살림을 해주는 그의 그런 도움은 정말 다행이었다. 아니, 다행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내가 받은 축복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그가 죽은 후에는 더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나는 병원에 나가서 환자 돌보는 일 외에는 너무나 아는 게 없었다. 심지어 가게조차 관여하지 않아 은행에 매달 지불해야 할 모기지 페이먼트는 얼마나 내는지, 전기, 가스등의 유틸리티는 언제 지불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다. 두 주에 한번씩 월급 수표 한 장 받아오면 남편이 은행에 입금하고 나서 내 용돈마저도 현찰로 바꿔 타 쓰는 한심한 여자였다. 식료품을 사러 갈 때도 언제나 남편과 함께 동행을 했으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자, 십 년이 넘는 미국 생활에서 체크 한 장 변변히 써보지 못할 정도로 수완도 능력도 없는 그런 여자가 30대 중반에 과부가 된 것이다.

그래도 다행히 운전은 했는데, 그나마 프리웨이는 못 타고 근처 로컬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운전 실력으로 간신히 병원에 출근만을 할 수 있었으니 남편이 없으면 꼼짝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다름없었다. ‘아니 닥의 바깥양반은 어떻게 그렇게 와이프 일을 도와줘요?’ 맞벌이하는 부부의 아내들이 이런 말을 종종하곤 했는데, 그 어감 속에는 부러움이라기보다 거의 빈축이 섞여 있었다는 것도 남편 죽고 나서 내가 홀로 서기에 된 진통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됐다.

돈을 벌어들 줄만 알았지, 쓸 줄도 모르고 가사에 그 돈이 어떤 용도로 들어가는지조차 모르도록 남편에게 의존되어 있는 여자로 나를 만들어 놓고 남편은 그 해가 끝나가는 12월, 아파트 월세 받으러 밤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아파트에 입주해 있던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히스패닉 사람들은 일주일 임금을 받으면 그 주에 다 털어먹는 사람들이라 주말엔 항상 먹고 마시는 일로 시간을 보낸다. 특히나 12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연말에는 입주자들이 모두 늦게야 집에 돌아오므로 그때는 평소보다 더 늦게 수금하러 나갔던 모양이다.

내가 전화를 받은 시각은 밤 11시 30분에 들어와 씻으려고 욕실로 들어가려는 참이었다. 엘에이 카운티 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창우~~ 리, 남편 맞습니까? 그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카운티병원 응급실로 빨리 와 주세요.” 그 말이 전부다. 교통사고를 당했던 말인지, 무슨 사고를 당했다는 건지, 사람은 얼마나 다쳤던 말인지, 알 수 없는 의혹들이 재빨리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담한 병원 사람의 보고에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쿵쥔거리기 시작했다. 더 알고 싶으면 빨리 오라는 투의 전화 속 목소리는 계속 귓전에서 뱅뱅 돌았다. 내가 손발이 덜덜 떨리는 감각으로 간신히 차를 몰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그는 이미 여기 사람이 아니었다.

흰 커버 밑으로 드러난 그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시퍼런 빛이 감돌았다. 만져보지 않아도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 손끝에 닿아지는 그런 피부를 하고 다시는 나와 눈도 마주칠 수 없고 입을 열어 웃을 수도 없는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다. 얼굴이 부어 있거나 어디가 외상이 있어 보이진 않았는데 옆구리 쪽으로 피가 흥건히 배어나와

두툼한 자색 점퍼로까지 번져 있었다. 남편은 가슴에 총을 맞은 것이다. 그가 돈 받으러 간 아파트에서 불과 한 블록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이 순찰 중이던 पुलिस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의 수중에 있어야 할 돈가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파트에 세 들어있는 입주자 중의 한 사람의 소행이 아닐까, 몇 달째 돈을 내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는데……. 아니면 현찰로 받은 월세가 꽤 큰 돈이라 누군가가 탐이 나서 그 돈을 빼앗고 그를 죽인 것일까? 이런 모든 의혹들이 그냥 추측일 뿐 하나도 단서가 될 만한 증거는 없었다. 철저히 수사를 한다는 경찰에서도 더 진전이 없이 그 사건은 우리 식구에게서 가장을 빼앗아 간 아픔만을 남겨놓은 채 지나간 소문처럼 묻혀버리고 말았다.

“누가 아빠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놈을 찾아서 나도 썩 버릴 거야! 아아양” 발버둥치면서 울던 아들 샘이 지금은 어엿한 고등학생이다. 그 애의 누나 앤은 벌써 대학생이다. 두 아이들이 성인의 문턱에 들어설 만큼 세월은 많이 흘렀다. 그동안 나는 남편 없는 과부로서의 외로운 결혼 생활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지나치게 남편의 과잉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온 탓으로 홀로 설 수 없는 병신의 몸에서 자립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다.

타지 못하던 프리웨이드 타야만 했다. 매달 물어야 하는 집세, 차세 및 보험료, 일 년에 두 번씩 물어야 하는 재산세들을 제 때에 만기일을 지켜 체크를 써야 했다.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등도 익혀야 하고 배워야 할 사항들이 많았다. 그렇게 깨끗하던 집 창가에는 금세 먼지가 수북이 앉았다. 반찬도 할 줄 모르던 내가 이것저것 요리책을 보면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냈다. 살고 있는 집은 세월이 지날수록 자꾸 고장 나는 곳들이 생겼다. 하수도가 뚫다거나 냉방 장치가 말을 안 듣는 등의 일이 생기면 무조건 사람을 불렀다. 고칠 줄도 모르지

만 사람 불러 돈 주고 고치는 게 훨씬 편했다. 그리고 집안 청소도 클리닝 레이디를 불렀다. 깨끗치 못한 집안을 보면서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청소부를 써서 정리정돈을 해놓고 사는 게 도리어 마음이 편했고 먼저 간 남편 타를 하면서 속상해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

남편은 돈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다. 그것 때문에 죽었는지도 모르는 아파트 건물은 그 즉시 팔아버렸다. 거기서 나온 돈과 남편의 생명보험 액수는 내가 은행에 넣고 그 이자로만 살아도 될 만한 액수였다. 게다가 계속 벌어드리는 나의 수입은 남편 없이 싱글로 사는 내 삶에 돈 걱정은 절대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탬이 되었다.

도리어 금전은 내가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찾는데 방해 조건이 되었다. “왜 재혼을 하지 않아요? 아이들 크면 더욱 쓸쓸해 질 거예요. 나이 하나라도 어렸을 때 빨리 하세요.” 주위에서 이런 권유가 많았지만 나와 재혼할 뜻이 있다고 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진짜 내가 마음에 들어서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이 탐이 나서인가 늘 나 자신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이 어린 탓도 있었다. 그렇지만 정말 다시 결혼 생활을 해보고 싶도록 좋아할 남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지금까지 혼자 살아온 것을 후회해 본 적은 한번도 없다. 두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는 일은 외로움이나 쓸쓸함 같은 감정에 빠질 만큼 한가롭지도 못했다. 곳곳에 묻어있는 남편의 손길이 담긴 집도 떠나지 못하고 아침저녁으로 그의 숨결을 맡으며 그의 그림자와 소리 없는 대화를 하는 한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닌란 생각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다.

새로운 사람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별로 현명하지 못할 거란 생각이 늘 지배적이었다. 나는 역시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기 위함보다는 지나간 시간과 추억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사는 편이 훨씬 나은 것 아니냐면서 묻고 또 물었다. ‘올해도 넌 혼자 너답게 잘 지냈냐?’란 물음이 머릿속으로 번득 스치자, 내 눈길은 어김없이 벽에 걸려 있는 달력으로 쏠렸다.

달랑 한 장으로 남아 있는 12월 30일에 하트 모양이 쳐져 있다. 그 날이 남편이 땅에 묻힌 날인데, 붉은 펜으로 표시된 하트가 마치 그 가 손짓하며 부르는 음성처럼 내게 다가온다. 30일이란 날짜에 그려진 하트의 뜻은 ‘남편 찾아가는 날, 가서 꽃을 놓고 오는 날, 그의 얼굴을 닦아주는 날’로 내 마음 속에 각인되어 있다. 아직도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되어 새 달력이 여기저기서 들어오면 벽에 걸어놓기 전에 우선 12장을 다 들치고 마지막 장의 30일에다 붉은 펜으로 하트를 쳐 놓는다. 내가 달력을 받아서 먼저 마지막 장을 들치지 않고 첫 장 1월 1일부터 맞이하는 날이 앞으로 내 생애에 있을까.

올 겨울도 유별하게 추운 날이 많았다. 추수감사절 지나 비가 많이 온 탓도 있을 것이다. 나는 캐시미어 코트를 꺼내 차에 넣고는 운전대를 잡았다. 운전하면서 입기에는 너무 비둔한 감이 있고 밖에서는 꽤나 쾌적감을 안겨주는 코트다. 할리우드 퍼레스트 로운 묘지로 가는 길은 134번 프리웨이를 옆으로 끼고 로컬로 갈 수 있는 한적한 산길이 있다. 속력을 내지 않아도 될 만큼 차량이 많지 않아 좋고 또 달리는 차들도 40마일 이상 속력을 놓지 않아 늘 편안함을 안겨주어 남편을 찾아갈 때는 언제나 이 길을 이용한다.

차에서 내리니 싸늘한 기운이 뺨을 스친다. 나는 코트를 입었다. 남편의 묘지가 있는 곳은 언덕으로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차를 세울 수 있는 길가에서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그의 묘소 자리는 좀 비싼 곳으로 가족묘 위치다. 작년까지만 해도 옆으로 묘 자리를 쓴 사람들이 없어서 의당 비어 있으리라 생각한 그 위치에

오늘은 웬 여자 하나가 앉아 있었다. 여기 묘소들은 땅 위로 솟는 분봉 스타일이 아니라 지하로 묻고 비석도 평면으로 땅위에 깔아놓는다. 그래서 묘지들 사이의 간격이 그다지 넓질 않아 멀리서 보면 바로 남편의 자리에 그 여자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처음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볼 때는 마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 같아 보이기도 했고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점점 다가가면서 보니 그 여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울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여자가 들고 온 꽃인지 흰 국화와 붉은 장미가 섞인 꽃다발이 탐스럽고 아름다웠다. 흰색과 빨간색의 배합이 계절에 어울리는 색깔로 꽤 열정적이다.

내가 갖고 간 꽃은 샛노란 해바라기 꽃에 자주색 국화꽃들을 섞어 가을 냄새가 짙은 꽃묶음이 유칼립스 잎 속에 들어있어 향내가 은은했다. 어디선가 한줄기 바람이 휘잉 불면서 여자의 머릿결도 날리고 꽃과 섞인 아스파라가스 잎도 흔들렸다. 그리고 장미와 유칼립스, 국화 향이 두 여자의 코 속으로 스며들었다.

여인은 묘비 앞에 파묻혀 있는 화병을 찾고 있는 모양이다. 땅속에 묻힌 화병 위로 풀이 자라 수북하게 덮히면 그 꽃병의 위치를 얼른 찾을 수가 없어 애를 먹는다. 더욱이 이 여자는 아무 연장도 없이 맨손으로 그 위치를 더듬고 있으니 참 딱해 보였다. 여자의 손톱 밑에 흙이 들어가 새까맣게 긴 것을 보면 꽃병을 찾은 시간이 꽤 된 모양이다.

“좀 도와 드릴까요? 비석 정중간쯤에 한 2인치 가량 내려와 묻혔어요. 이것 보세요. 이쯤에 둥그렇게 금이 그어져 있잖아요?” 나는 미리 준비해 간 호미와 드라이버를 꺼내서 쇠로 만든 꽃병을 땅 속에서 흙을 헤치고 들춰 내보이면서 “저기 가서 물을 받아와서 꽃을 담으세요.” 눈으로 수돗가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 감사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내가 미리 경험했으니까요. 처음엔 나도 이렇게 찢찢 땀어요. 가족 중 누구 묘지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나는 그 묘비를 내려다보았다. 내 남편의 것에 비해 꽤 클 뿐만 아니라 보통들 만드는 대리석처럼 번쩍이지 않는 돌판에 새긴 비문이 아주 이색적으로 눈에 들어왔다. 얼른 보기에는 무슨 서문을 쓴 것처럼 글자들이 많이 새겨져 있어 호기심을 갖고 머리를 숙여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남편의 비석보다 두 배 정도는 큰 사이즈 비석 위에 적혀진 글은 ‘방을 나서며’란 시였다.

“방을 나서며

잘들 있거라

나는 잠시 외출 한다

매 절은 침대와 베개, 책장과 흠어진 책

재떨이와 커피 잔, 빛바랜흑백사진

몇 장도 잘들 있거라. 벗어놓은 양말도

속옷도 살 냄새도 잘들 있거라

나는 잠시 외출 한다

술 냄새와 신경질에 익숙한 너희들

우리에게 행복은 없느냐고 희망은 없느냐고

들리지 않는 소리로 항상 묻지만 왜

새벽잠 끝에 단꿈도 꾸어 주지 않았느냐

황홀한 외간 정사도 꿈꾸어 주지 않았느냐

고국 신문도 편지도 찾아오고

아침마다 우리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리지 않더냐, 그 희미한 소리를 따라
나는 잠시 외출한다. 불을 끄면
더욱 캄캄하게 물드는 너희들

2002년 선달 그믐날”

“돌아가신 지 벌써 몇 해 됐군요. 어째서 내가 진작 못 봤을까요?
난 해마다 두세 번은 이곳에 꼭 오곤 하는데…… 제 남편은 십여 년
전에 여기로 왔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2002년은 그이가 시를 쓴 때이고, 여기 묻힌 지는
석 달쯤 됐어요. 세상 뜨고 나서 처음 맞는 송년이라 찾아온 거예요.
혼자 지내기 쓸쓸한 시간이잖아요.”

“거, 참. 신기하네요. 내 남편하고 생년월일이 같아요. 이 분도 오
래 못 살고 가셨군요. 49세에…… 그래도 제 남편에 비하면 십 삼년
은 더 계셨네요.”

“세상에! 그렇게 일찍 갔어요? 그럼, 병으로 가시진 않았겠네요.
저이는 병으로 고생고생하다 갔어요. 간암으로요.”

여자는 다시 한 번 눈을 내리깔고 비석을 쳐다보며 독백하듯 맥없
이 말했다.그녀는 음성이 크지 않은 목소리로 사분사분 말을 잘했다.
처음 만났는데도 낯선 감이 안 들고 썩 친숙하게 느껴졌다. 여자로
크지 않은 몸매에 말할 때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남편 묘소에 온 사
람 같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 그리고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싶
어지는 일종의 사람을 유인하는 듯한 힘, 즉 매력이 있었다.

“남편이 시인이었나 봐요. 이걸 고인이 쓰신 건가요? 아니면?”

“네, 맞아요. 남편이 쓴 시예요”

“이렇게 고인의 시를 써서 비문으로 삼으니까 꼭 살아서 음성을 들

려주는 것 같아 좋군요. 금방 나갔다 들어올 것처럼 방을 나서며 자기가 쓰던 물건들, 재떨이와 커피잔, 하다못해 던져진 양말에게조차 잘들 있거라, 나는 잠시 외출한다고 인사하는 시인, 죽어서도 살아 있는 사람 같네요. 여기 와서 이 시를 읽으니깐, 정말 삶과 죽음이 그냥 잠시 자기가 지내던 방에서 외출하는 간격밖에는 아니란 생각이 드는군요. 참 생각을 잘 했어요. 이렇듯 고인이 쓴 시를 비문으로 새긴 것 말입니다. 올 적마다 남편의 목소리 듣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어요.”

“참, 저는 자넷 박인데, 성함이?”

“스잔리예요. 아직 미세스 리지만요, 스잔이라고 불러주세요 직장에서도 모두 스잔이라고 부르니까요.”

“스잔은 문학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이 이의 시를 이해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관심이 많다가보다 책 읽기를 좋아해요. 시간을 내지 못해 그나마도 잘 읽지 못 하지만요. 특히 시를 많이 좋아해요. 짧은 글 속에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어 시에 더 끌리지요.”

“나는 시라면 지긋지긋 해요. 하도 남편이 시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놈의 시시한 시 한 줄 쓰기 위해 자기 방에 쳐박히면 방문을 열질 않았으니까요. 시가 잘 써지면 배고픈 줄도 모르고 히히거리고 잘 안 되면 공연히 옆의 사람에게 신경질과 온갖 짜증 다 부린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나도 시 쓰는 남자, 어쩐지 멋있고 인생을 낭만적으로 살 것 같아 좋구나하고 따라 다녔지요. 데이트 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편지도 남 못 쓰는 구절을 섞어 쓸 줄 알고 말은 또 얼마나 멋지게 구사하는데요. 하여간 저는 남편에게 훌쩍 반해서 그의 생활력이나 재정 능력은 보지도 않고 결혼을 했어요. 그가 못 별면 내가 별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말이예요. 내 직업이 뭔지 아세

요? 난 헤어 스타일리스트예요. 미국에 오자마자 미용기술을 익혀서 베벌리 힐에 있는 미용 살롱에 한자리 맡아 미용사로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사람의 얼굴형에 맞게 커트를 잘한다, 이 미용실에서 헤어컷을 하면 오랫동안 머리 손질하기가 수월하다는 등 나에 대한 좋은 입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나를 찾는 손님이 꽤나 많았어요. 그러니 자연히 나는 돈을 잘 벌었지요. 남편이 한푼 벌지 못해도 우리 애를 낳아 키우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현실은 연애했을 때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가장 구실을 못하고 돈 한푼 되지도 않는 시 나부랭이나 쓰자고 머리 싸매고 들어앉아 있으니, 저이가 그렇게 보기 싫고 못나 보이는 거 있죠. 총각 때는 키가 커서 늘씬한 게 보기 좋던 게 풀없이 기가 죽어 구부정한 어깨가 어느새 중늙은이처럼 느껴지고, 맨날 집에 들어앉아 책만 보는 것도 옛날에는 지성인 같아 좋더니만 나중엔 무능력한 좀팽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남편이 벌어들여 주는 돈으로 살림하면서 집안 치장도 하고 다른 여자들처럼 모양도 내고 싶고 여자들끼리 수다떨 때 남편 자랑도 하고 싶어지는 거 있지요.”

“아, 잠깐만. 나도 이 꽃 좀 꽃아 놓고 남편에게 인사는 하고 나서 우리 다시 얘기 하지요.”

나는 거북했지만 자넷의 말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곤 풀쭈를 헤치고 화병을 찾아 물을 받아서 가져온 꽃을 담고는 비석을 물수건으로 닦으면서 돌아오지 않는 말을 시작했다.

‘여보, 오늘 당신하고 같은 날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당신 옆 자리에 묻혔어요. 당신에게도 친구가 생겼네요. 당신네들은 지하에서, 우리들은 지상에서 영혼과 육체의 대화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 맘이 기뻐요. 어쩐지 이제 당신이 외로워 보이지 않

아서요. 그동안은 여기 왔다 돌아서려면 맨땅 한 데에 혼자 두고 가는 것 같아 늘 마음이 쓰라렸어요. 어느새 금년도 다 끝나가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애들도 더 성숙해지겠지요. 처한 위치에서 제대로 자기 몫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이 지켜주고 복을 빌어주세요. 나는 그 애들 잘 되는 것 바라보면서 당신 옆으로 가는 날까지 쓸쓸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아유, 무슨 말을 그리 오래 주고받으세요? 난 산소에 오면 머리가 텅 비어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데…… 두 분은 부부 관계가 참 좋으셨나 봐요.”

자넷이 기다리다 못해 다가와 물었다.

“됐어요. 아까 하던 얘기마저 할까요. 사실, 우리 그 맥의 경우와는 좀 다르게 아주 끔찍스럽게 남편이 갔어요. 겨우 십 년 남짓 살아온 결혼 생활에서 그나마도 내가 너무 받기만 하고 남편에게 해준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여기만 오면 늘 빗진 기분이라 얼른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요.”

“거 봐요. 내 말대로 두 분의 부부 금슬이 각별하지 않고서야 돌아가신 지 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런 감정일 수 있나 말이에요. 세상에 부부의 모양새가 이렇게 많이 다르군요. 난 저이랑 살면서 언제나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어째서 부당한 대우 뿐일까 생각하고 늘 밑진 기분으로 살았거든요. 빚졌다고 밟혔다는 생각이 주는 결과는 이렇게 다르군요.”

낮지도 높지도 않은 목소리로 조용조용히 들려주는 자넷의 이야기는 계속 되었다.

“하루 종일 서서 여자들의 머리를 만져야 하는 내 직업 역시 그리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기가 돈 버는 일이 어디 수월한 게 있으랴만 여성들의 기호를 알아서 각자의 마음에 들게 머리를 만져주는 일이란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게 종일 시달리다 집에 들어왔는데 가정주부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잔뜩 싸여있으면 나는 어디론가 피해 달아나고 싶었어요. 나가고 싶는데 돌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밖에 나가 돈도 벌어들이지 못하면서 집안일도 거들지 못했어요. 집의 일이란 것이 눈에 척척 들어와야 치우고 만들고 애들 뒤처리도 할 수 있는 건데, 그이는 집에서는 눈감고 사는 사람 같았어요. 오로지 책 읽고 글 쓰는 일 외에는 하는 게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가는 곳도 책방밖에는 아무 데도 안 갔어요. 백화점도 안 가고 그로서리 마켓에도 가는 적이 없었어요. 이토록 도와주지 않는 남편과 살면서 아이 키우고 풀타임 직장일을 한다는 건 흔히 말하는 수퍼우먼이라도 못 해낼 양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한국에 혼자 계신 친정 엄마를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내가 미국 시민권자라서 친정엄마 모셔오는 일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오면서 우리 가정은 더욱 분란에 빠져들었어요. 엄마의 눈에 비춰진 사위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함이 지나쳐 게으름으로 보였나 봐요. 하나밖에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자식을 미국까지 와서 저리도 고생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매일 남편을 곱지 않은 눈으로 쳐다볼 뿐 아니라 차라리 내 앞에서 안 보였으면 하는 눈치를 보내곤 했으니까, 그런 사위와 장모 사이는 내가 남편을 미워하는 수준을 훨씬 넘었어요. 엄마가 하도 그일 못살게 구니까 남편은 되도록 집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밥도 나가서 먹고 거의 매일 술타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 혼자 그일 미워할 때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더니 엄마까지 합세해서 사사건건 야단을 쳐대니까 남편이 점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리고 그런 엄마

가 야속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집에서 구박받는 처지에 주머니에 용돈마저 떨어지면 안 되지 싶어서 나는 아침에 나갈 적마다 몇 십 달러씩 그이 책상 서랍에 넣어주곤 했는데 그것이 아마 매일 술을 마시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엄마, 준이 아빠 좀 그냥 놔 둬. 자기도 저러고 싶어서 그러겠어? 돈은 나 혼자 벌어서도 넉넉히 살 수 있으니까 저이는 그냥 시나 쓰라고 해요. 그전처럼. 엄마 오기 전에는 저이가 밖으로 나돌지 않았는데. 요즘은 엄마하고 눈 마주치기 싫으니까 걸핏하면 나가잖아요.”

“넌 그래도 서방 편이야? 돈 한푼 벌어들이지 못하는 주제에 술은 왜 그렇게 맨날 마셔대!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요즘은 책타령도 하더군. 시집인지 뭔지 내줬다면? 그 책을 내서 팔린다든? 몇 천 달러라도 자기 돈 들여야 한다니. 다 네 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난 알다가도 모르겠다. 무슨 공부할 게 없어 돈 버는 게 아니라 죽도록 매달려 써가지고 돈 들이는 일이야?”

“엄마, 그 얘긴 그만 해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남편이 병들기 전 그동안 써 온 시들을 모아 시집을 출간하고 싶어 했는데 그때 못 내준 게 많이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한참 투병하는 동안 시집을 내주면 그가 혹시 기쁜 마음에 병이 좀 호전될까 싶어 ‘사막의 돌’이란 시집을 출판했어요.

엘레이 어느 근교 카페에서 근사하게 출판기념회도 열어주었지요. 그때 나는 처음으로 남편이 이곳 문인들에게 대단한 존경과 그의 시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한국서도 어떤 대학 국문학 교수가 서평을 써주고 출판 기념회 때 이곳의 많은 문인 선배들이 격려와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을 보고 집에 이런 보배가 있음을 알아보

지 못한 내가 참 무식하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옛날 한국에서 그이가 재직했던 모 여고 졸업생들이 남편의 이름을 알아보고는 몇 번 찾아오기도 했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때만큼은 남편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느끼는 것 같았고 뿌듯한 자긍심마저 드는 것 같아 보였어요. 나 역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즐겁고 자랑스럽기도 했지요.

근데 남편의 시에 대한 고민은 시집을 내고 나서 더 가중되는 것 같았어요. 좋은 시를 쓰고 싶는데 되지 않는 어떤 한계점을 전보다 더 알게 된 거지요. 식구들에게 제대로 가장 구실을 못 한다는 자책감은 항상 있는데다 맘대로 안 되는 작품 세계에 대한 고충마저 섞이니 그이의 몸은 영육이 함께 피폐해져 갔어요. 심적으로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속의 암세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의 병세는 시집을 출간한 이후로 나날이 더 악화됐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그 통증을 이겨내느라 힘들겠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병수발 들어야 하는 고충 역시 해 본 사람만 알아요. 암이란 병은 신경 계통의 병과는 달리 정신이 말짱한 만큼 그암 균이 몸 구석 구석까지 파고들 때의 통증은 말할 수 없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가슴을 쥐어뜯고 머리를 침대에 처박으면서 괴로워 할 때라든지,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거의 해골처럼 말라가는 몰골하며 정말 지켜보기 힘들었어요. 게다가 자존심은 세서 아무도 자기의 모습 보는 걸 원치 않았어요. 남편에 대한 측은지심도 처음 얼마간이지,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고 환자를 위해 특별한 식단을 신경 써야 한다면 짜증안 나겠어요? 저렇게 고통 받고 살려면 차라리 죽는 게 백 번 낫지요. 하나님, 저이 그만 고통주고 그만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아마, 지금 저인 평안할 거예요.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얼마나 오래 투병을 했는데요?”

“암 진단 받고나서 3년 반쯤 살았나, 그래요. 근데 그동안이 매일 투쟁이고 아귀다툼이었다는 거 상상도 못할 거예요. 난 한참 동안 그 악몽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난 자넷 박 씨가 부러워요. 내게도 남편을 위해 그렇게 마지막 가는 길 위해 수발 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삼 년간이 아니라 단 석 달만이라도 약을 챙겨 먹일 수 있었다면, 건강식품 골라 요리도 해주고 병원에 운전도 해서 데려가기도 해 봤다면, 난 지금처럼 계속 죽은 남편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저의 남편은 길지도 않은 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산 기간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건지도 모르는 채 살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괴한의 총에 맞아 36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거든요. 하다못해 병에 걸려 죽었다면 그 병환 때문이라고 이 유라도 대지요. 그렇게 죽는 게 그이의 운명이라고 간단하게 말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유도 없고 원인도 모를 그런 방법으로 신이 그를 그렇게 빨리 데려간 것을 자넷이라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자넷 남편은 진정으로 지금쯤 땅 속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괴롭던 육신의 고통도 사라지고 편히 누워있는데 사랑하던 아내가 한 해가 끝나간다고 이렇듯 아름다운 꽃다발을 들고 와서 바라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지하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겠어요? 정말 복이 많은 시인이고 남편입니다. 그리고 저기 아래 내려다보이는 할리우드 시내에서 바빠 살겠다고 허둥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유 있는 웃음을 짓고 있을지 몰라요. 그는 방을 나서듯 가볍게 일어나 슬쩍 옮겨 앉으면서 ‘잘들 있거라 난 잠시 외출한

다’ 라고 다시 말하겠지요. 그 만의 안녕처럼 인사를……. 오늘, 나는 참 반갑고 고마워요. 차갑고 딱딱한 흙속에 홀로 파묻혀 있다고만 생각해온 내 남편에게 시인 친구가 옆으로 왔기 때문이지요. 살아서도 못 만났던 시인의 봄날을 맞이하고 있고 진정 그들은 그 봄빛을 위해 축제를 올릴 겁니다. 그럼, 그 봄기운은 바로 우리에게도 미치지 않겠어요. 봄이 시작되는 3월21일 여기서 다시 만나요.”

두 남편들의 생일, 같은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남은 두 여인은 속으로 말했다.

잘들 있어요. 우리 잠시 헤어지는 동안.

주 : 이 소설 속에 인용된 시 「방을 나서며」는 고인이 되신 유장균 시인의 시집 『세크라멘토의 목화밭』에서 발췌했습니다.

극무의 초인

최정열

1

따사로운 가을의 햇살이 바람을 간질이면 바람은 까르르 웃어대며, 이리저리로 가을 햇살을 피해 달아나다가 가을 들판으로 숨어 버리고, 가을 들판은 머리를 들이민 바람을 자신의 품에 숨겨 주느라고 움찔꿈찔 댄다. 그 많은 가을 꽃 중에서 가장 웃음이 많은 해바라기가 그 꼴을 보고서 으하하 웃어대고, 그 모습을 곳곳에서 숨어 보던 들국화들이 살며시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인다. 이름 모를 들꽃들이며 들풀들이 들판에 숨어버린 바람 때문에 와르르 와르르 온몸을 흔들어대고, 가을 들판은 이내 아늑한 환상에 잠겨버린다.



1957년 서울 출생. 세종대학교 졸업. 아이오와 주립대학, American Tech. University, 보스턴 대학 수학. 2002년 『문예운동』으로 등단. 현재 한국소설가협회 회원. 장편소설집 『천년왕조의 비밀』 『에밀리 에쉬본의 키싱구라미』 『한부루의 칼』 『광화사의 사랑』. 영문소설집 『Plea Bargain (Publishamerica, 2005/9)』 외 다수.

하늘하늘.

가을 들판에 유난히 눈에 띄면서도, 들판을 모조리 점령하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 하늘을 닮았는가? 움직임도 하늘하늘한 가냘픈 코스모스들. 들판에 헬 수도 없는 그리움을 갈아가면서 피어난 수많은 코스모스가, 그 숫자에도 불구하고 가을 들판을 점령할 수 없는 까닭은 아마도 그 그리움 같은 하늘하늘한 몸매 때문일지도 모른다.

진하는 펜을 들고 코스모스 몽우리에 살포시 내려앉은 고추잠자리를 그대로 뜨려고 한다.

거친 땅사 같은 투박함에 정교함의 선들이 마법의 주문처럼 흘러가고, 점점이 주름 잡힌 꾀지에는 빨간 풍요함이 머문다. 호느적대는 가을의 느슨함이 그 야릇한 머리에 머무르면, 고추잠자리는 허우적 두 날개를 늘어뜨리며, 흔들리는 오후의 한껏 부푼 만족감을 만끽한다…….

이 정도로 쓰다가 진하는 그냥 펜을 놓아버렸다. 어쩌면 이 하늘대는 코스모스 숲 속에 휘청거리는 가을을 안고 있는 저 고추잠자리를, 펜으로 종이에 옮기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진하는 풀밭에 사지를 벌리고 벌렁 드러누웠다. 구름 한점 없는 가을 하늘이 가없는 높이로 그의 영혼을 끌어올린다. 들판에서 흐르는 온갖 향기가 그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며, 그의 영혼은 하나의 날개가 되어서 가을 하늘로 솟아오른다.

가을의 바람은 은은히 그의 영혼을 하늘 높이로 떠받치고, 눈앞에 확 들어오는 선명한 색상의 완벽한 조화들. 그리고 그 조화들은 점점 하나 하나씩 몽쳐지면서 거대한 가을의 빛깔을 꾸며낸다. 작은 언덕이 보이고, 키 큰 미루나무들이 이제는 눈 아래에 펼쳐지면서, 그 미루나무가 늘어선 옆으로 난 길이 누런 황토를 드러낸 채로 길게 누워

있다. 가을바람은 은빛 줄기로 다가와서는 진하를 더욱더 푸른 하늘로 떠올린다. 이제 가을 들판은 아득한 거리로 멀어지면서 진하는 창공을 한없이 유영한다. 눈앞에 스치는 수정보다도 맑은 공기, 가슴이 탁 트이는 거칠 것 없는 공간, 그리고 황금빛 별판이 마냥 풍요로워 보이고, 곳곳에 울창한 녹림(綠林)이 상큼하게 풍요함 속에 성숙함을 일깨워준다.

얼마나 오랜만에 날아보는 것인가? 날개! 오랜 세월 동안 방황과 타협과 그리고 망각 속에서 스르르 녹아 형체도 없이 사라졌던 그 날개. 까르륵대며 온 감각을 일깨워서 자신을 한없이 하늘로, 하늘로만 날게 했던 그 날개. 그러나 어느 땐가 그 아름답던 날개는 흔적도 없이 자신의 가슴에서 사라져버렸고, 진하는 그 사라진 때도 기억할 수 없었기에 아쉬움도 느끼지 못했었다.

어느 날, 그가 자신의 날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던 날, 일상의 단조로움이 그에게 먼 옛날의 환상을 추억으로 이끌어 낸 바로 그 날, 생활과의 타협에 겹겹이 쌓인 미망(迷妄)이 후드득 몸을 떨며 부서지던 날, 진하는 숨이 턱턱 막혀 오는 간절함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일상(日常)에서 달아나버렸다.

얼마나 오랜만에 날아 보는 것인가? 등줄기 속에 망각이라는 이름으로 접혀졌던 그 감각이, 날개라는 형상으로 뚝뚝 뚝뚝 깨쳐서 나타나며, 그의 영혼은 온통 새파란 창공으로 날아오른 것이다. 은빛 날개. 잠자리의 망사 같은 투명한 날개보다도 더 투명한 그런 날개. 항상 파르락 파르락 대면서 하늘을 날아오르고자 하는 욕망을 지녔던 날개였다.

무공(無空)을 날아다니면서 진하는 꿈을 꾸다. 무언지 잡히지 않는 불분명한 꿈을. 그것은 염원이고, 기도이고, 그리고 안타까움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와르르 썩아아. 갑자기 가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진하는 흠칫 가을 들판으로 다시 돌아왔다. 시공을 초월한 움직임이런가? 진하는 주위가 소란스러워짐을 느끼면서 누워 있던 윗몸을 일으킨다. 누군가가 가을 들판으로 침략자처럼 들어서는가 보다. 윗몸을 일으키자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들판으로 들어서는 하얀 교복들을 바라보고서 숨이 훅하고 멈춘다. 아! 가을 들판의 한적함이 소녀들의 발랄함에 까르르 까르르 무너지고 있다. 예닐곱 명의 제복을 입은 소녀들이 가을의 들판을 마음껏 누비면서 자연의 성숙함에 몸을 맡긴다.

진하는 소녀들의 발랄함과 명랑함이 자신의 감각 사이로 흘러들어 자신의 마음도 소녀들과 같이 상큼하게 변이되어짐을 느낀다. 소녀들은 깔깔거리기도 하고 꽃을 코에 갖다 대어 보기도 하면서 가을에 취해 가고 있다. 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어 빙그레 미소 짓는다. 바로 문학소녀들이다. 자연의 정취를 가슴에 담고 그것을 공책에 그대로 옮겨 보려는 듯 소녀들의 손에는 공책들이 들려 있다. 자신도 저들과 같이 꿈을 백지에 담아 보려고 했던 때가 기억난다. 처음 자신이 글을 시작할 때를.

진하는 소녀들이 시상에 몰두해서 한 쪽에 자리를 잡고 앉자, 자신도 다시 펜을 잡는다. 가을 들판을 다시 그려내려는 것이다.

날개 달린 모든 것들의 합창이 들꽃의 몸짓과 어우러지면, 가을은 온통 삶의 환희로 물들어진다. 키 작은 들국화의 시샘도, 하늘을 비상하는 역새 씨앗들의 아우성도 모두가 한 폭의 가을 풍경에 더해진다.....

진하가 펜을 멈춘 까닭은 가을을 쫓아 진하가 있는 쪽으로 올라오던 소녀가 진하를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소

너가, 진하가 풀숲에 앉아 부지런히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다가, 이어서 소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진다. 아마도 자신이 진하가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방해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일 게다. 그런 소녀의 얼굴을 보고 진하는 빙그레 미소 짓는다.

“안녕!”

진하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을 건네자, 입도 벅긋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려던 소녀가, 웬지 그대로 눈을 들어 진하의 얼굴에 눈길을 고정시킨다. 그리고는 소녀의 얼굴에 놀라운 기색이 역력해졌다.

“아니? 혹시, 저…….”

진하가 시선을 돌리다가 그런 소녀의 말을 듣고는 다시 소녀를 바라다본다.

“으응?”

“천진하 선생님 아니세요?”

진하가 씩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런 시골에도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해서가 아니라, 이런 자그마한 소녀가 자신을 알아본다는 사실이 신기해서였다. 진하가 아무 대꾸도 안하고 그저 이런 미소만을 보이자 소녀가 깡충 뛴다.

“맞군요.”

진하가 무어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소녀가 후닥닥 뛰어간다. 그녀의 발밑에서 가을이 빠사삭 부서진다. 무엇이 저리 기쁠까? 후후, 자식…….

잠시 후에 진하 앞으로 소녀는 다시 돌아왔고, 이번에는 혼자서 아닌 다른 학생들과 함께였다. 그 가운데 인솔자인 것 같은 여성이 진하에게 다가선다.

“천진하 선생님!”

여성의 입가에 감격스러운 표정이 서려 있다. 아, 그러고 보니 그녀의 손에 진하의 책이 들려 있다.

『하늘을 뺨은 초인』

진하의 가슴이 떨려온다. 얼마만에 보는 자신의 저서인가. 진하가 초창기에 쓴 작품이다. 그리고 발행 부수도 거의 없었기에 시중에는 볼 수 없는 잃어버린 책. 그런데 어떻게 그 책이 저 여성의 손에 흘러 들어갔을까.

“선생님,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의 얼굴에 기쁨과 간절함이 동시에 깃들여져 있다. 진하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책을 건네받는다. 장편이 되기에는 너무 작고, 중편이 되기에는 조금 많은 분량의 책이다. 그렇기에 더욱 가치가 없는 책인지도 모른다.

“성함이…….”

진하가 묻자 여자가 얼굴을 붉힌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부끄러운 것 같은 표정으로…….

“안희정이에요.”

진하는 그 이름을 듣고 책에다가 글귀 한 줄을 써 나간다.

‘안희정씨의 마음이 하늘을 뺨을 수 있기를……天眞河.’

“아니, 선생님의 성은 일 천 ‘천(千)’ 씨가아닌가요?”

보기 드물게 예리한 안목이었다.

“이렇게도 씁니다.”

진하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하늘에 흐르는 참된 강’이다. 진하가 보통 책에서는 안 쓰는 필명이었다. ‘초인’이 나타났기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쓴 것이다.

하늘에 흐르는 강은 시작이 없다. 시작이 없으니 끝도 있을 수 없

는 것이다. 땅을 흐르는 강은 시원지(始原地)가 있고, 그 마지막은 바다이다. 그러나 하늘에 흐르는 강은 영원에서 시작해서 영원까지 흐르는 것이다. 수많은 영혼들의 소망이 눈물로 화해 모여지고, 그것의 사연들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런 흐름. 그것이 하늘에 흐르는 강인 것이다.

“저는 이 마을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희정은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아, 선생님이시군요.”

진하는 희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를 해준다.

“항상 선생님 책을 읽어 왔어요. 독특한 분위기의 명쾌한 글들을 말이죠.”

진하는 소녀들이 다시 뛰어다니거나 다른 곳에 가서 앉아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것을 겉눈으로 보면서 희정에게 말했다.

“앉으세요. 편찮으시다면.”

희정은 스르르 진하의 옆에 앉았고, 그 바람에 그녀의 아래에서 들쭉날쭉이 까르르 웃어대는 것 같은 소리를 냈다.

“우리 학생들도 모두 선생님의 글을 읽었어요. 말하자면 우리들 모두가 선생님의 독자들인 셈이지요.”

“고맙습니다, 안 선생님.”

진하가 이렇게 답례하자, 희정의 얼굴에 약간 섭섭한 표정이 어렸다. 진하는 그것을 보고 자신이 너무도 사무적인 어투로 말했다고 후회했다.

“그런데 그 책은 어떻게 구입하셨나요?”

진하는 아직도 그것이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다. 이런 시골에서는 구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었고, 또한 대도시라도 그 책은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쇄소를 하던 진하의 친구가 그 시절

에 장난삼아 만들었던 것이고, 그 인쇄 부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에 시중에는 전혀 나돌아 다니지 않는 책이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저자인 진하에게도 한 권도 남아 있지 않은 책이다.

“친구 것이에요. 친구가 귀한 책이라고 제게 넘겨주었죠.”

진하는 그 친구가 누구냐고 물으려 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아마도 알 수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알아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가을은 오후의 황금빛 태양 아래에서 천천히 익어 갔고, 그 익어 가는 가을 사이로 소녀들의 상큼한 웃음소리가 맴돈다.

“초인은 누구지요?”

진하는 회정이 불쑥 이렇게 묻자 잠시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 초인을 물을 정도면 회정은 그 책을 이해한다는 말이다. 잠시 멍한 눈빛으로 회정을 쳐다보다가 진하는 고개를 젓는다. 누가 감히 초인을 누구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가? 초인이 누구인지 진하도 확신할 수 없다. 초인은 초인일 따름이다. 초인이 공자, 예수, 석가, 조로아스터처럼 종교적 성인이거나 소크라테스, 플라톤처럼 철학적 사상가거나 갈릴레오, 뉴턴, 아인슈타인처럼 과학적 지식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초인이 또한 신을 부인하는 신이 될 수 없음도 또한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초인은 그저 초인일 뿐이다.

진하는 갑자기 이 여성과 대화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미 까마득한 날에 사라져버린 날개와도 같이, 아름다운 가을날에 그의 사상에서 까마득하게 사라져 간 초인의 발자취가, 서서히 그의 가슴에 다시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2

진하는 허술하게 지어진 교사의 끝에 붙어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

섰다. 어차피 민박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희정의 권유에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으려는 것이다. 어스름밤이 찾아오고 있었고, 시골의 어설픈 교실들은 밤의 기운에 가려져 그 낯선 빛을 잃어간다. 항상 밤은 친숙하게 찾아 왔기에 그 친숙한 밤에 쌓인 것은 어떤 것이라도 낯설지 않았다.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희정은 상당히 미안해하는 눈치였지만 진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어떨 때는 그저 나무 밑에서 침낭만으로 밤을 난 적도 있으니, 이렇게 지붕이 있는 방에 머무는 것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고맙소.”

진하는 이렇게 말하다가 희정의 얼굴을 보고는 황급히 입을 다물어 버린다. 그녀의 표정에 기분 나빠하는 기색이 역력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책과는 많이 틀리시군요.”

실망했던가? 항상 그랬다. 책 속에는 환상과 꿈과 아름다움과 기쁨이 들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쓴 작가에게 책과 그대로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다. 책과 현실의 작가는 완전히 별개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제가 선생님에게 실망한 것은 현실과 허구를 구별하지 못해서가 아니예요.”

어떻게 진하의 마음속을 알았는지, 희정이 이렇게 말했고, 진하는 그 말을 듣고서 흠칫 놀란다.

“선생님의 내면을 막아 세워 놓은 벽 때문에 실망한 거지요.”

벽? 무슨 벽? 진하는 자신이 무슨 벽을 쌓아 놓았는가를 생각해 보지만 알 수가 없다. 희정이 스르르 밖으로 나가고 진하는 아직도 희정의 말을 곰곰 생각해 본다.

미친 사람이었다. 머리카락은 흙과 먼지투성이로, 비듬이 희끗희

끗한 것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저 먼지처럼 보일 정도로 더러운, 그런 미친 사람이었다. 얼굴에는 온통 털복숭이이고, 더러운 것들이 마구 그 털들에 섞여서, 보기만 해도 역겨워지는 그런 광인이었다. 옷은 그저 거적때기로 중요한 부분만을 간신히 가렸으며, 신발은 한쪽에는 다 떨어진 운동화였고 다른 한쪽은 낡아서 더 이상 가족의 검은 부분이 보이지도 않는, 앞창이 헤벌어진 구두였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가서는 그를 놀려대다가 미친 사람이 획 하고 고개를 돌리면, 아이들은 공포심에 우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을 쳤다. 진하는 그때 그 미친 사람의 눈동자를 보고 심한 충격을 받았다. 그 눈동자가 마치 불덩이와도 같다는 생각이 퍼뜩 든 것이다. 이글이글 타는 태양과도 같은 빛. 미친 자는 그런 눈으로 진하를 보더니 손을 들었다. 마치 어떤 성스러운 행위와도 같은 몸짓으로. 그리고 그는 세 손가락을 펴고 두 손가락을 접은 채로 무슨 주문을 웅얼웅얼 외워댔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었고, 그 주문에는 또한 아무런 효과나 영험도 없는, 쓸데없는 것이었다. 만일 그 주문에 효과가 있다면 그 미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나 복을 비는 것이 나올 터였다.

그것이 왜 진하에게 초인을 생각게 했던가? 아니, 그게 아닐 것이다. 그가 초인을 생각하는 중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우연일 뿐이라.

노크 소리가 들리고 회정이 들어오는 통에 진하는 상념을 거둔다.
“시장하시지요?”

그녀의 손에 작은 상이 들려 있고, 금방 지어 온 밥에는 김이 주술적인 힘을 가진 듯이 피어오른다. 그러고 보니 날씨가 많이 추워진 듯도 하다. 진하는 밥상을 받아 들고 고맙다고 하려다가 그만 입을 다문다. 회정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녀의 실망어린 눈동자가

.....

시장한 터였기에 밥맛은 마치 꿀맛과도 같이 달았다. 진하는 밥을 먹으면서 회정의 말을 듣는다. 그녀의 꿈꾸는 것 같은 표정을 가끔씩 바라보면서.

“꿈을 꿔어요. 초인이 하늘을 밟는 꿈이죠. 엄청나게 큰 초인은 그 구름 같은 발로 하늘을 밟고서는 꺾꺾대고 웃었지요.”

진하는 입 안에 든 밥을 씹으면서, 그녀의 초인은 자신이 그린 것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을 한다. ‘하늘을 밟은’의 의미는 정말로 하늘을 밟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회정의 초인은 정말로 형상화되어서 하늘을 밟고 있는 것이다.

진하가 밥상 위에 놓여 있는 술잔을 물끄러미 바라보자, 회정이 주전자를 들어서 한 잔을 따른다. 비록 그냥 소주이지만, 그것이 담겨진 용기가 틀리니 사뭇 분위기가 있다. 진하가 휘영청 한 잔을 입안에 쏟아 넣는다.

“밤이 깊어 가는군.”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다. 그저 중얼거림일 따름이었다. 그런데 회정이 대꾸한다.

“밤이 깊어도 초인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는군요.”

회정의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닌 듯이 들렸지만, 진하는 그 말을 애써 묵살한다. 그녀의 가슴속에 어떤 것이 숨어 있기에 저렇듯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을까? 자신이 어릴 때 꿈꾸었던 초인에 대한 그리움일까?

“『광인(狂人)과의 대화』는 정말로 멋있었어요.”

진하는 이제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져 버린 ‘초인’의 이야기를 기억하려고 애쓴다.

“세계의 축대는 천주(天柱)입니까, 지주(地柱)입니까?”

아! 진하는 희정의 이 같은 질문을 듣고는 그것을 기억해 낸다.
「초인과 광인과의 대화」를…….

초인은 광인에게 묻는다.

“세계는 우주에 속해 있고, 우주는 세계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계의 축은 지축입니까, 천축입니까?”

광인이 웃는다.

“네 품에는 입이 있고, 네 입 속에는 혀가 있다. 그러면 네가 말하는
것은 네 혀냐, 아니면 너냐?”

초인은 다시 광인에게 묻는다.

“하늘은 높고 땅은 넓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깊은 것은 무엇입니
까?”

광인이 웃다가 침을 뱉하고 뺨는다.

“땅이 넓어도 더러워지고, 하늘이 높아도 가려진다. 그러면 깊은 것
은 어디로 갈꼬?”

초인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여 경의를 표하고 광인은 더러
운 손을 내저으며 휘적휘적 사라진다.

진하가 그때 왜 그런 말을 썼는지 기억할 수가 없다. 단순한 글장
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분명히 무언가 간절했기에 그런
말을 썼을 것이다.

“내게 뭐를 원하지?”

진하의 말투가 비로소 바뀌고 희정의 눈동자가 그 말을 듣고는 반
짝하고 빛난다.

“모든 것이요. 초인에 대한 모든 것.”

진하가 희정의 이 같은 말에 웃는다. 그리고는 초인의 입술을 흉내
내서 말했다.

“땅은 말할 입이 없고, 하늘은 들을 귀가 없는데, 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희정이 그 말을 듣고 진하에게 술 한 잔을 더 따랐고, 진하는 천천히 손을 들어서 술잔을 잡는다.

“당신, 욕심이 많군.”

희정이 아련한 미소를 보였다.

『하늘을 밟은 초인』은 이렇게 시작된다.

혼돈 전에 세상이 있었으니, 그것은 혼돈이 가려지기 전 아득한 옛날의 일이다. 모든 것은 세 개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것을 나눈 것이 삼(三)이고, 시작한것이 일(一)이다. 셋은 나누어져서 아홉으로 끝나고 다시 하나로 시작된다. 이 셋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있다. 그 자를 초인(超人)이라고 한다. 처음 셋은 이름이 없고, 초인도 처음 셋과 같이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그러나 구태여 숫자를 붙인다면 그것은 나라이지 않은 숫자이다…….

진하의 머릿속에서 까만 점으로조차도 남아 있지 않은 그 혼란스러운 문자들. 그것들의 나열이 진하의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온다.

“천부경인가요? 아니면 노자인가요?”

진하가 이렇게 묻는 희정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노려보나, 희정은 고개를 숙이거나 눈길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진하의 눈동자를 마주 노려본다. 진하가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좌우로 젓는다. 그것은 천부경도 노자도 덕경도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번에는 희정이 고개를 젓는다. 그것이 천부경인지 노자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기보다는 그것의 의미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기 때

문이다.

“술 한 잔 하겠소?”

진하가 이렇게 권하자 희정은 손을 저으며 거절한다.

“친구가 있었어요. 선생님의 『하늘을 밟은 초인』을 우연히 입수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선생님의 책에 심취해서 몇 달 동안 오로지 초인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떠났어요.”

떠나? 진하에게는 그 ‘떠났다’는 의미가 꼭 잡혀 오지 않는다.

“초인을 만나겠다는 거였지요.”

아! 진하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어쩌면 자신이 오래 전에 써 놓고 까맣게 잊어버린 책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진정한 의미가 되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을 지도 모른다. 진하는 초인을 찾아 떠난 그가 정말로 용기 있는 자라고 생각했다. 자신은 그 글을 썼으면서도 초인을 찾으러 떠나기는커녕, 세월이 지나면서 초인을 까맣게 잊어버렸지 않은가?

“그래서 그 친구는 초인을 찾았나?”

진하의 물음은 당연한 것이지만, 희정이 그런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듯,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불쑥 진하에게 묻는다.

“술 더 하시겠어요.”

그러고 보니 주전자가 어느새 가벼워져 있다. 이왕 시작된 대화기에 진하는 대화를 끝내고 싶었고, 그래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이왕에 오늘밤에 잠들기는 틀린 것 같다. 희정이 주전자를 들고 밖으로 나간다.

초인의 일 년에는 계절이 없었다. 그는 이미 계절을 뛰어 넘었기 때문이다. 아니 계절을 뛰어 넘은 것이 아니라, 계절 이전에 초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창 밖에 지는 낙엽을 보면서 진하는 오랜 만에 초인에 대해 꿈꾼다. 초인에게는 23.5가 없다. 그러니 계절이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계절이 없다는 의미는 계절의 멈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계절을 뛰어 넘음의 의미이다. 가을은 계속 가을이고, 봄은 계속 봄이지만, 초인에게는 그 모든 것을 뛰어 넘어 관망할 수 있는 거대함이 있다. 그것이 초인의 일 년이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알라? 초인은 계속 여행을 하지만 그의 발에 밟히는 것은 언제나 하늘이다. 왜?

희정이 주전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서자, 진하가 그녀에게 불쑥 물었다.

“초인은 몇 개의 손을 가지고 있지?”

희정이 질문을 받고 주전자에서 술이 쏟아질까 봐 주의하면서 대답한다.

“다섯 개지요.”

“어째서?”

“하나는 하늘을 가리키고, 하나는 땅을 가리키고, 하나는 인간을 끌어안고, 하나는 의미 없이 매달려 있고, 나머지 하나는 빙 둘러 있지요.”

진하는 그녀의 대답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자신의 초인은 그렇게까지 구체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왜 의미 없이 매달려 있지?”

희정이 웃는다. 그리고 진하가 따라 웃는다. 무서운 초인이다. 진하의 초인보다 한결 인간에게 다가선 초인이다.

희정이 술 한 잔을 그의 잔에 따르고 이제는 자신도 한 잔을 따라 마신다.

“왜 이곳에 있지?”

다분히 현실적인 질문이다. 그들의 한동안의 선문답(禪問答)식의 대화가 끝나고 진하는 술이 취해 몽롱한 눈동자로 희정을 바라본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갈증처럼 지식을 갈구하는 아이들을.”

어디선가 들어보았던 익숙한 감정의 토로인 것 같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갈구하는’이라는 의미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꽤 깊은 뜻이 되어 진하의 가슴에 다가선다. 진하가 고개를 끄덕이자, 희정은 가녀린 손으로 다시 술 한 잔을 따른다.

“이곳에는 학생 수가 전부 합해도 30명이 넘지 않아요. 제가 오기 전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상당 수 있었죠.”

제자를 키운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일이다. 진하도 후에 언젠가는 제자를 키워 보겠다고 간절히 소망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같은 생각도 다 사라진 채로 오로지 혼자만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

“희정씨는 외로워 보이는군.”

이렇게 말하는 진하의 눈이 거의 감길 듯하다. 희정이 웃는다. 그 웃음이 마치 ‘정말로 외로운 것은 선생님이에요’ 하는 것 같다.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무슨?”

“우리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해요.”

음. 진하의 눈이 가늘게 떠지면서 신음 소리가 났어진다. 웬지 모르지만 희정의 말은 대단히 유혹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닌 데도.

“단 한 시간만이라도 좋아요, 선생님.”

진하의 머릿속에 술기운이 잠의 마귀처럼 들어서고, 진하는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린다.

이상하게 고등학교 나이 정도 되는 남학생은 없었다. 6명의 여학생들이 고등학교 정도 나이 또래 되는 학생의 다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발랄함이 있다. 파닥파닥 율동하는 날개처럼. 진하는 그들에게서 열정을 느낀다. 하늘로 치솟고자 하는 열정을. 그 뜨거운 감정을 앞에 두고 진하는 입을 연다.

“너희들은 누구인가?”

소녀들이 진하의 말에 어리둥절 한다.

“너희들은 나무들이다. 하늘을 향해 치솟는 나무들. 그리고 너희들은 날개들이다. 하늘을 윤행할 수 있는 날개들. 앞으로 이 세상에서 한껏 사상을 키워 나갈 그런 날개들인 것이다.”

소녀들의 가슴속에 나무들이 하나씩 살아나고, 그들의 등 뒤에서는 하늘로 날아가고 싶은 욕망을 지닌 날개들이 꿈틀댄다.

“머릿속에는 세상을 가득 채우고, 가슴속에는 세상을 가득 품을 꿈을 가진 나무들이여. 전 우주를 날아다니며 한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날개들이여.”

진하는 태양이 된다. 나무들을 키워낼 태양이. 그리고 날개들이 날 수 있도록 빛을 줄 수 있는 태양이. 이글거리는 태양은 자신을 태우면서 만물을 살려낸다. 나무들이 태양을 향해 뻗어 나가며 그 열기의 입자들을 흡수한다. 곧 날아갈 수 있는 약동의 힘을 비축하기 위해.

한 시간은 후딱 지나갔지만 그 한 시간 동안 진하는 태양이 되어서 마음껏 열기를 발산했다. 시간이 끝나고 진하는 자신의 강의에 아직도 감명을 받은 채로 멍해 있는 희정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그녀가 준비해 오고도 정신이 없어서 아직도 손에 그대로 들려 있는 커피를 받아서 한 잔 따라 마신다. 커피 향을 타고 진하의 기분도 마냥 날아오를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당신은 멋진 아이들을 키워 놓았군.”

희정이 제 정신이 돌아오는지 살포시 웃는다. 어젯밤처럼 도전적인 모습이 아닌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 같은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잔잔히 머문다. 진하는 그 미소를 보면서 여자들은 수없이 많은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남자가 오직 하나의 얼굴로 평생을 지나는데 비해, 여자는 수없이 많은 변신을 하는 것이다.

“선생님 작품과 같은 아이들이지요.”

내 작품과 같은 아이들? 진하는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깨끗하고 소박하고 순수한 작품을 쓰려고 노력했던 자신의 마음을 그녀가 읽은 것일까? 진하는 그녀의 말에서 희정이 단순히 자신의 『하늘을 밟은 초인』만을 읽은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한다. 아마도 그녀는 그 작품을 읽은 이후로 꾸준히 진하의 전 작품을 탐닉했으리라. 전혀 ‘초인’과 닮지도 않은 그런 작품들을.

“선생님은 왜 방랑 중이지요?”

희정이 이렇게 물었고, 진하는 자신이 왜 방랑 중인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무언가 자신의 기억에서 어긋난 단편이 감쪽같이 사라진 느낌이다. 그는 자신이 방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황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지도 못하는 세상을 부유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최소한 초인을 찾기 위해서는 아니야.”

진하는 이런 말을 간신히 내뱉었을 뿐이다. 하긴 초인은 오래 전에 그의 기억에서 까맣게 사라져버렸는데, 자신이 초인을 찾기 위해서 방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희정이 자신을 쳐다보는 눈길에서 진하는 아득한 꿈을 꾀다. 초인이 하늘을 비상하는 꿈을.